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3757

2013년 2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이종응의 <셔유견문록> 연구

-<西槎錄>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신 예 슬

이종응의 <셔유견문록> 연구

-<西槎錄>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A Study on <Seoyukyonmunrok> by Lee, Jong-eung

-Focused on the contrast with <Seosarok>-

2013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신 예 슬

이종응의 <셔유견문록> 연구

-<西槎錄>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상 원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2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신 예 슬

신예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수 중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 준 철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상 원 인

2012 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사 6

Ⅱ. <셔유견문록>의 생성 과정 9
1. <셔유견문록> 창작의 배경 9
2.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의 문학적 관계 12

Ⅲ.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의 대비 28
1. 순서가 변경된 경우 33
2. 내용이 추가된 경우 43
3. 내용이 삭제된 경우 53
4. 내용이 요약된 경우 62

Ⅳ. 사행가사로서의 <셔유견문록>의 특징 75
1. 서술상 특징 75
1) aaba식 구성 75
2) 4·4조의 율격 77
3) 영탄법의 적절한 활용 80
2. 내용상 특징 83
1) 서양 문물에 대한 감탄 83

2) 인종에 대한 차별적 인식 ····· 91

Ⅴ. 결론 ····· 97

참고문헌 ····· 100

ABSTRACT

A Study on 〈Syeoyugyeonmunrok> by Lee, Jong-eung

-Focused on the contrast with <Seosarok>-

Shin Ye-seul
Advisor : Prof. Lee Sang-won Ph.D.
Major in Korea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Seoyukyonmunrok> of a Sahaeng Gasa in the latter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at is a work recreated in Korean from <Seosarok> that was an existing Chinese record by Lee, Jong-eung, an official of the Joseon Dynasty. <Seoyukyonmunrok> is a work that described the feelings and experiences of the author about the products of civilization of 10 countries after he visited the enthronement ceremony of Edward VII of England as a member of envoys to congratulate the ceremony.

It was the transit time of the Joseon Dynasty toward to modern times. When the dynasty was suffering from national chaos, the author traveled to the West and experienced earlier the modern products of civilization. Through the course, the author who believed that China was the center of the world might have the

chance to rethink of the West.

Once <Seosarok> was re-invented to <Seoyukyonmunrok>, it has changed its genre diary to lyrics, we can to find there are many changes because the genre was changed. Change of contents stand out as being more important than the rest, in this study is about aspects of changing the contents. Firt of all, there is changing the order we can find two parts in here the writer used it for stirring up interest. The second is if you added content to the <Seoyukyonmunrok> than the <Seosarok>. This is the writer's subjective feelings of adding a comment in the <Seoyukyonmunrok>and about is a part of the narrative comments. The third aspect is the contents of <Seoyukyonmunrok> into <Seosarok>, if deleted.Structural unnecessary content by author, by that part of the work of the structure eliminated the more interesting and robust. And finally, the fourth aspect is a significant part in the process of being transferred to the <Seoyukyonmunrok> in the <Seosarok> summary of the case. <Seosarok> in long overwrite the contents described in the content of their interpretation, omly required throughout the process briefly.

As examined above, based on the type changes this study confirmed that <Seoyukyonmunrok> has plenty of 'aaba' type structures and most lines are the Sasajo type. However, exceptionally several parts used a technique to destruct the Sasajo type in order to transfer hightened emotion of the author. Moreover, the author using a variety of rhetoric for description expresses lively aspects as readers experience it in person. In addition, explanation is added to new products of civilization or

difficult Chinese letters to help reader's understanding.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 the author takes a positive position to accept and praise the products of the West and sees them with wonder.

After travel to the West, the author wrote <Seosarok> and <Seoyukyonmunrok> and in the point that the contents described the western aspects carefully and realistically, they have a big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but it also has the limits that the author just admired the modernized aspects of the West but didn't make mention of the reality of the Joseon Dynasty and consideration of the counterplans for the future.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20세기 초에 한글로 창작된 서양 기행가사인 이종응(李鍾應, 1853-1922)의 <셔유견문록>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작품이 지어질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서사록>에서 <셔유견문록>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셔유견문록>의 배경이 된 시기 조선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지 30여 년이 지난 시기였다. 이 조약으로 인하여 일본은 조선 침략을 위하여 조선에 압박을 가하며 조선 침략의 밑바탕을 마련하기 시작한 시기였기에 조선땅에서 조선인과 조선의 문화, 조선 정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조약을 계기로 강제적으로 미국, 프랑스 등 여러 서양 열강과의 수교도 차츰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조선은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와의 수교를 통해 강제 개항으로 인한 강제적 근대화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인식의 변화는 화이관(華夷觀)의 재고(再考)이다. <셔유견문록>이 쓰여지기 이전에 쓰여진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통하여 조선인들은 서양의 존재 및 서양의 문화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조상 대대로 중국을 최고라고 믿던 보편적인 인

식을 벗어나 중국 이외에 다른 문화도 존재하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대외를 인식하는 기제가 '중화'에서 '근대'로 변환되면서 서구 세계에 대한 경탄의 시선도 강화되었을 것이다.[1] 이 연구의 목적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조선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근대화의 산물인 신식문물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이나 타국의 문화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멀게만 느껴졌던 서양의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한 조선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서양문화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되었다.

조선 사람들의 서양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만한 사행가사인 <셔유견문록>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을 것이다. 물론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통하여 서양의 존재 및 그들의 문화에 관하여 언뜻 알기는 하였지만 <서유견문>이 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 국가관을 제시하는 등 무거운 주제를 다룬 반면 <셔유견문록>에서는 작자가 직접 체험한 10여 개 나라의 문물 및 풍속을 사실적이고 흥미진진하게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이종응의 <셔유견문록>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셔유견문록>은 1902년에 이종응이 지은 사행가사이다. 작자는 고종으로부터 이재각 특명대사의 수행원으로 발탁되어 영국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조선 경축 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기 위해 1902년 4월 7일 인천을 출항하여 약 4개월 뒤인 8월 20일 인천항으로 다시 돌아왔다. <셔유견문록>은 그 4개월 동안 방문하였던 여러 나라들의 문물과 풍속에 대

1) 김윤희, 「조선후기 사행가사의 세계 인식과 문학적 특질」,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p.245.

하여 서술하고 있다. 조선 경축 사절단의 목적지는 영국이었지만 영국 이외에 그들이 조선과 영국을 오고 가면서 순방한 십여 개국의 나라들에 대하여 체험한 바를 각각의 나라별로 서술하고 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 떠나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귀환하기까지 그 일행은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리랑카, 싱가폴, 홍콩, 중국 등 10개국을 순방하였으며 기행을 하며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매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때 기록한 내용은 그가 세계기행에서 돌아온 한달 쯤 뒤인 1902년 9월 1일에 <서사록>이라는 한문 일기 형식의 작품으로 탄생한다.

한편 작자는 한문으로 쓰여진 <서사록>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한글 가사인 <셔유견문록>을 창작하였는데, 이는 <서사록>이 완성된 후로부터 한 달여 뒤 완성되었다. <셔유견문록>에는 여러 나라들의 신문물과 낯선 풍속에 대한 작자의 비판과 수용, 작자의 주관적인 감정 및 의견과 작자가 경험한 새로운 세계 등 다양한 시대적 체험을 담고 있다. 특히 한문 일기형식의 <서사록>에서 한글로 서술된 <셔유견문록>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을 통하여 당시 사회 경험이 적고, 사회 진출이 어려워 다른 계층에 비해 비교적 서양나라의 새로운 문물을 접하기 힘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 즉 서양의 모습과 풍속에 대해 글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셔유견문록>은 발견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존재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다른 사행가사들에 비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해유가'와의 비교 연구 또는 다른 사행가사들과의 특징 연구에 속한 부분적 연구가 전부이다. 잘 알려

지지 않은 탓인지 아직까지 <셔유견문록>이라하면 우선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문학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종응의 <셔유견문록>을 집중적으로 얀구하여 작품이 갖는 의의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국문학사에 역사적,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셔유견문록>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99년의 일이다. 그 해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여왕의 방문에 맞추어 당시를 기준으로 거의 백 년 전인 1902년 영국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우리나라[국호:大韓帝國]에서 파견된 축하사절단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시의 일을 가사작품으로 남겼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이다.[2] 이를 계기로 작품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학계에 소개된 것은 2002년에 이르러서이다.[3] <셔유견문록>이 국문학사, 특히 가사문학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행가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그 존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셔유견문록> 단독으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고에서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을 조금 더 세밀히 연구하고자 한다. 물론 기존에 작품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셔유견문록>에 관한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 <셔유견문록>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을 기행하고 쓰여진 김한홍(金漢弘, 1877-1943)의 <해유가(海遊歌)>[4]와 비교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

2) 김상진, 「<셔유견문록>에 나타난 西洋, 그 열망의 공간」, 『한국언어문화』 제43집, 2010. 12, p.6.
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이종응의 <서사록>과 <셔유견문록> 자료」, 『동양학』 제32집, 2002. 6, pp.133~215.
4) 1908년 김한홍(金漢弘)이 아메리카합중국을 여행하고 지은 기행가사.

다. 이런 비교 연구가 대부분이기에 <셔유견문록>을 단독으로 심층 연구한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드물다. 이렇기 때문에 필자는 본 연구에서 <셔유견문록>이 쓰여진 당시 사회적 상황과 서양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의 관계를 밝혀보고, <셔유견문록>으로 재창작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작품의 내용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작자는 비록 나라의 명(命)을 받아 공적(公的)인 신분으로 세계 일주를 하였지만 <셔유견문록>에는 세계 방방곡곡의 신기하고 기이한 풍물들, 서양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환상, 이국 문명에 대한 비판과 수용 등 작자의 다양한 체험이 담겨 있다. 따라서 <셔유견문록>을 작자의 개인적인 여행기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문학사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연구하려 한다. 또한 <서사록>에서 <셔유견문록>으로 재창조되면서 나타난 내용 변화 양상을 통하여 사행문학으로서의 <셔유견문록>에 나타난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는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의 동양학 제32권의 「李鍾應의 <西槎錄>과 <셔유견문록> 資料」라는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밝혀 둔다.

2. 연구사

<셔유견문록>은 발견이 늦은 탓에 다른 사행가사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몇몇 연구가 전부이다. 2002년에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에서 <서사록>을 한글로 번역하고, <셔유견문록>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5] 이로써 비로소 <셔유견문록>은 학계에 작품의 면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김원모의 연구는 <서사록> 번역, <셔유견문록> 정리에 그친 내용으로 심도 깊은 연구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김원모가 작품을 세상에 공개한 후 김상진은 「李鍾應의 <셔유견문록>에 나타난 서구체험과 문화적 충격」[6]이라는 연구를 통해 이종응의 관점에서 본 서구세계의 풍물과 그 체험에 따른 문화적 충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였다. 그는 사행을 떠나기 전, 떠난 후, 환국(還國)시 작자의 심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셔유견문록>에 관한 그의 또 다른 연구로는 「<셔유견문록>에 나타난 西洋, 그 열망의 공간」[7]이 있다. 이 연구에서 김상진은 이종응이 여러 국가를 직접 체험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작자에게 내재된 선진문명에 대한 열망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김기영은 「<셔유견문록>의 문예적 실상과 교육적 가치」[8]에서 작품의 표현방식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작품 속의 국어 어휘 자료, 민요적 어법, 사대부 문학의

---

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앞의 논문, pp.133~215.
6) 김상진, 「李鍾應의 <셔유견문록>에 나타난 서구 체험과 문화적 충격」, 『우리文學硏究』 제23집, 2008. 2, pp.36~65.
7) 김상진, 앞의 논문, pp.5~29.
8) 김기영, 「<셔유견문록>의 문예적 실상과 교육적 가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7집, 2002. 12, pp.127~153.

전통 등을 교육적인 의미와 결합하여 연구하였다.

여기까지가 <셔유견문록> 작품 자체에 대한 연구라면 정흥모의 「20세기 초 서양 기행 가사의 작품세계」[9]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미국기행가사인 김한홍의 <해유가>와 <셔유견문록>을 비교하여 연구한 것이다. 또한 박노준은 「「海遊歌」와 「셔유견문록」 견주어 보기」[10]라는 연구에서 <해유가>와 <셔유견문록>의 견문의 주 대상과 서술방식에 대하여 두 작품을 비교 연구하였다.

한편 김윤희는 「조선후기 사행가사의 세계 인식과 문학적 특질」[11]에서 작품이 쓰여진 당시의 동아시아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또한 역사학자이자 <셔유견문록>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은 김원모는 『한국의 영국 축하사절단 파견과 한·영 외교관계』[12]라는 논문을 통해 영국으로의 축사사절단 파견을 통한 한 · 영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 논문에는 본고에서 연구할 작품인 <셔유견문록>의 에드워드7세 축하사절단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셔유견문록> 단일 작품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행가사, 특히 김한홍의 <해유가>와의 비교 연구를 시도하거나 조선후기 대표적인 사행가사의 일부분으로 <셔유견문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다각도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9) 정흥모, 「20세기 초 서양 기행 가사의 작품세계」, 『한민족문화연구』 제31집, 2009. 11, pp.27~56.
10) 박노준, 「<海遊歌>와 <셔유견문록> 견주어 보기」, 『한국언어문화』 제23집, 2003. 6, pp.127~162.
11) 김윤희, 앞의 논문.
12) 김원모, 「한국의 영국 축하사절단 파견과 한·영 외교관계」, 『동양학』 제32집, 2002. 6, pp.87~126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셔유견문록>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는 하지만 작품의 특정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 해설에 치중되어 있다. 작품의 대략적인 이해를 넘어 보다 더 심도 깊고 본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셔유견문록>과 <서사록>의 연관성 및 내용변화 유형과 이에 따른 작품의 내용상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셔유견문록>의 생성 과정

1. <셔유견문록> 창작의 배경

이 작품은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당시 사회상에 대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셔유견문록>은 작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단지 공무수행의 일부분일지라도 작품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당시 시대상황과 사회 상황에 대해 많은 메시지를 독자에게 남기고 있다. 이는 <셔유견문록>이 작품 그 자체로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과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작자가 사행을 다녀오고 작품을 쓸 당시 조선은 근대화로 접어들던 시기였으며, 개화가 시작되고 있던 시기였다.

1876년 체결된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으로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서양 열강과도 차례로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확대해 나갔다. 하지만 이들 서양 열강과 맺은 조약도 일본과 맺은 조약과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러한 국내적, 국외적 상황으로 당시 조선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상황이었다. 고종황제는 근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조선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고군분투하였다.

당시 일본과 조약 체결 후 국내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갈등으로 대립이 심화 된다. 게다가 명성황후 세력과 흥선대원군 세력 사이의 갈등,

일본 세력의 침투에 대한 국민의 반발 등이 얽히면서 조선은 혼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급진개화파가 근대화의 주체가 되어 직접 근대화하자 갑오개혁[13]이 일어났다.

갑오개혁은 과거제 폐지, 사법권 독립, 신분제 폐지, 조혼(早婚) 금지, 과부의 재혼 허용, 도량형(度量衡) 개정 통일, 조세 금납화(金納化) 등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며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갑오개혁은 당시 민중의 개혁 욕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민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혁이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침략 목적을 가진 일본의 힘이 작용함으로써 그것이 근대 민족 국가 수립으로 연결되는 개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반도 침략을 본격화하는 데 도구가 되는 제도적 개혁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14]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은 문호 개방을 통해 근대 국가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고, 청나라에도 유학생을 파견하여 톈진에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을 배우게 하였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근대화도 중요하지만 자주 국권을 수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서유견문록>에서도 이러한 혼란스러운 조선의 상황이 은연중에 잘 나타나 있다.

20세기 초에는 개화로 인한 서구적 근대화로 인해 중국 중심의 세계관(中華主義)이 서양 중심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서 <서유견문록>은 근대화에 대한 작자, 더 나아가 한국의 강

---

13) 1894년(고종 31)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 19개월간 3차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개혁운동을 말한다. 을미사변을 계기로 추진된(1895년 8월~1896년 2월) 제3차 개혁을 따로 분리하여 '을미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4) 신명란, 「한국 근대 이행기 시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8, p.31.

한 열망을 나타내었으며, 서양문물에 대한 동경과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 조선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보아 1902년 당시 작품 속에서 작자는 영국 및 여러 서양 국가들을 체험하고 그들의 문물과 풍속을 관찰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자국(조선, 朝鮮)의 부국강병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작품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5)]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된 1902년 4월에 작자는 1902년 6월 26일에 있을 영국 에드워드 7세 즉위 대관식에 참가하기 위해 축하사절단의 일원으로 파견되었다. 사절단이 출항한 1902년은 러·일 전쟁 발발 2년 전이며, 한반도는 러·일 양국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군사적 대치로 인해 치열한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 조선에 대하여 당시 영국의 《런던 모닝 포스트》지에서는 한국을 '독립 불능국'이라 이를 정도로 러·일 양국 사이에서 조선은 점점 입지가 좁아드는 추세였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영국으로 경축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대관식은 1902년 6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에드워드 7세의 병환이 깊어져 대관식은 무기한 연기되었기에 조선의 축하사절단은 결국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고 귀국하기로 결정하여 1902년 8월 20일 인천에 도착한다. 당시 영국 및 다른 서양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조선보다 이른 시기에 근대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작자는 목적대로 대관식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문물들과 서양의 기술력, 서양

15) 김윤희, 앞의 논문, p.253.

의 문화 등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근대화로 인해 혼란을 겪던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2.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의 문학적 관계

서쪽을 횡단하여 갔기 때문에 이름 지어진 <서사록(西槎錄)>은 조선후기 관리인 이종응(李鐘應, 1853~1922)의 한문 기록물이다. 작자는 50세가 되던 1902년(광무 6) 이재각(李載覺, 1873~?) 특명대사의 수행원에 발탁되어 이재각이 이끄는 축하사절단의 일원으로 영국의 왕인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떠났다가 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문 일기형식으로 기록하여 <서사록>이라 이름 지었다.

<서사록>은 1922년에 필사한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구성을 살펴보면 총 68면이며 한 면에 12행씩 기록되어 있는데 1행은 21자로 이루어져 있다. 책의 크기는 가로 21.5cm, 세로 30cm이다.[16] <서사록>은 세 부가 있었으나 현재 원본은 미국에 있으며, 이종응의 손자인 이우용(李宇鎔)이 1922년 옮겨 쓴 필사본과 그리고 내용을 요약하여 한글로 풀어 쓴 <셔유견문록(西遊見聞錄)> 원본은 작자의 증손인 이해석(李海石)이

16) 부천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사』 1권, 2002, pp.477~478.

소장하고 있다.[17] 이종응의 세계기행 견문록은 <서사록>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읽기 쉽도록 요약하고 한글로 풀어 <셔유견문록>을 엮었다.

<셔유견문록>의 집필 목적은 <서사록>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다. <서사록>에서 작자는 "여기 기록한 문자(見聞記)는 비록 더할 수 없이 천속하고 비루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백가지로 바쁜 시간 중에 정신을 집중해서 적어둔 것이기에 이 기록을 책으로 엮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 책을 집안에 비치해서 집안 청년들이 이를 열람해보고 그 당시의 장관(壯觀)과 고생스러움(辛苦)이 어떠했는가를 알게할 뿐이다."[18]고 하며 서문을 마무리하고 있다.

<서사록>과 <셔유견문록> 모두 동일한 기행을 하고 작성한 작품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음은 당연하지만 서술방식 및 표현 방법에 따라 약간의 여정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 여정부터 살펴보자.

A

1.궐안 → 2.서대문 → 3.인천항 → 4.일본[나가사키→시모노세키→고베→요코하마→동경]→ 5.빅토리아항[벤쿠버섬에 위치한 항구] → 6.밴쿠버항 → 7.베이커산 → 8. 위니펙정거장 → 9. 슈피리어호 → 10.토론토정거장 → 11.나이애가라폭포 → 12.퀘백항 → 13.몬트리올정거장 → 14.퀘백항 → 15.아일랜드항구 → 16.리버풀항구 → 런던정거장 → 17.런던[거리, 동물원, 보석상점, 서커스장, 영황궁, 법킹힝궁, 수정궁, 감옥, 소방본부, 희마장, 놀이장, 관

17) 김원모,「李鐘應의 <서사록>과 <셔유견문록> 解題」,『동양학』제32집, 2002,6, pp.127~128.
1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앞의 논문, p.133.

병식 구경, 인도 병정조련 구경, 후제릉] → 18.도버항 → 19.프랑스 칼레 → 20.프랑스 파리 → 21.이탈리아 제노바 → 22.나폴리항구 → 23.스트롬볼리 항구 → 24.이집트항 → 25.수에즈운하 → 25.홍해 → 26.아덴 → 27.맥도 → 28.콜롬보 → 29.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 30.말레이시아 피낭항 → 31.싱가포르 → 32.율록도 → 33.홍콩 → 34.야송 → 35.상해항 → 36.나가사키항 → 37.엄원항 → 38.부산항 → 39.목포 → 40.인천항 → 41.서울

A′

1.시문[西大門] → 2.인천 황(항)구 → 3.일본[나가사키→고베→시모노세키→요코하마 항] → 4.틔평양 → 5.방구보[밴쿠버] → 6.햑틔영 → 7.마졔포[나이아가라폭포] → 8.귀빅[퀘벡]항 → 9.딕셔양 → 10.영국 항구 → 11.영국 셔율[런던 거리 · 백화점 및 화원 · 동물원 · 희대 · 영황궁 · 법킹힝궁 · 슈졍궁 · 연무장] → 12.의딕리[이탈리아] → 13.쏴노화[제노바] → 14.낫불[나폴리] → 15.익급항 → 16.소시하[수에즈 운하] → 17.지즁힉 → 18.홍힉항 → 19.아졍[아덴]항 · 딕완국[페르가나] → 20.인도양 → 21.셕난도[콜롬보] → 22.셔녁국 → 23.빈낭[페낭]항 → 24.신가파[싱가포르] → 25.향항[홍콩] → 26.상힉항 → 27.일본 장긔 → 28.동닉 → 29.부산항 → 30.목포항 → 31.인천 졔물 → 32.[셔울][19]

A는 <서사록>에 나타난 여정이며 A′는 <셔유견문록>에 서술된 여정이다. <서사록>에서 발췌한 A의 경우 직접 발췌하여 정리하였지만 A′의 경우 김기영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일단 이 두 자료를 거시적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 작자가 경험한 여정들은 영국을 중심으로 사행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얼핏 비슷한 여정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씩 비교해 본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정의 시작과 마무리 부분에서 작자는 차이를 두고 있음이 잘 드러나

19) 김기영, 앞의 논문, pp.128~129.

있다.

작자는 특별한 일정이 없던 항구나 정거장 등 여러 일정에서는 <셔유견문록>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많이 삭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배에 승선하거나 빅토리아항에 도착하거나 리버풀항구에 도착, 또한 한국으로 출항하면서 들른 맥도나 율록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체험을 한다거나 기억에 남을만한 일정이 없었기에 <셔유견문록>으로 재해석되면서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서사록>에서 <셔유견문록>으로 재해석되면서 추가된 여정도 기록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여정의 마무리 부분이다. <서사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동닉'라는 지명을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오랜 여정을 마치고 고국과 가까워지며 들뜬 마음과 반가움을 작자는 지명을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는 <서사록>보다 더 길고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면서 작자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되어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서사록>이 <셔유견문록>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탈락되거나 요약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내용이 줄어든 만큼 여정이 줄어든 것 또한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볼 수 있겠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한문 일기형식으로 기록된 <서사록>과 이를 요약하고 해석하여 읽기 쉽게 풀어쓴 <셔유견문록>은 근본적으로는 서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지라도 <서사록>이 <셔유견문록>으로 옮겨지고 해석되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두 작품이 완전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크게는 두 작품의 여정부터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세세하

게는 견물의 대상과 날씨 등 작자가 표현하려는 대상이 한 가지라고 할 때 이 한 가지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표기 수단인 한문, 한글에 따라 작품의 느낌이 달라진다.

<서사록>의 경우 "심지어 날씨가 흐리거나(陰), 맑거나(晴), 바람이 불거나 비가오는(風雨) 등 일기의 변화까지도 모두 기록하였다."고 서문에서 밝힌 대로 일기형식이기 때문에 글 위에는 항상 '6월 19일(5. 14) 흐림', 즉 날짜/음력날짜/날씨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셔유견문록>의 경우 날짜와 날씨가 생략되고 바로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며, <서사록>과 달리 정확한 날짜 표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작품의 서두부분에서도 정확한 기고 일자를 기록하지 않고 '임인(壬寅) 팔월(八月) 하한(下澣)'이라고만 언급하여 독자들은 이 작품이 임인년 8월 하순에 기록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작품에서 정확한 날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3행 부분 '양녁뉵월이십뉵일(陽曆六月二十六日), 영국황데(英國皇帝) 등극(登極)이라', 228행 '양녁(陽曆) 뉵월(六月) 이십삼일(二十三日), 영황(英皇) 영후(英后) 청쳡(請牒)으로 [청ᄒᆞ난 편지]', 288행 '양녁(陽曆) 칠월칠일(七月七日)날에, 영황궁(英皇宮)에 드러(들어) 가셔' 정도이다. 일기문으로 기록되어 매일 날짜가 기록된 <서사록>과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셔유견문록>에서 정확한 월일(月日)뿐만 아니라 연도(年度)까지 정확히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완성된 날짜, 즉 탈고일자이다. 총 422구까지의 탈고를 마친 작자는 작품의 말미에 '임인(壬寅) 팔월(八月) 이십팔일(二十八日)이 칙(冊)이 다른 칙(冊)과 다르니 타닌(他人)은 번역(飜譯)ᄒᆞ야 가든 못할

ᄉᆞ(事)'라고 서술하였다. 다른 사람의 번역을 막기 위해 쓰여진 이 끝부분에서 기고 날짜 또한 정확한 날짜를 서술하지 않았던 작자가 탈고 날짜는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작자는 임인년 8월 28일에 탈고하였음을 독자에게 명확히 밝혀두고 있다.

A

7월 10일(6. 6) 맑음

오전 11시에 배가 나폴리(짜불, Napoli)항구(이탈리아 地界)에 도착했다. 이 도시는 대단히 부유하고 인구는 50만이나 되지만 도적과 거지떼가 우글거리고 있다. 여객선이 항구에 접안하자마자 이들은 기다렸다는듯이 작은 배나 나무 판대기를 타고 여객선 바로 아래 까지 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혹은 헤엄치면서 배위의 선객을 바라보고 동냥질을 벌인다. 배위의 선객이 바다가운데로 돈을 던져주면 거지들은 몸을 거꾸로 해서 물속으로 자맥질해 들어가서 돈을 주워서 나온다. 항구의 경찰은 이러한 자맥질해서 돈찾는 일을 엄금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거지들이 물속 깊숙히 들어갔다가 고기밥이 될까 염려되어 금하고 있는 것같다. 잠시 하선해서 부두가로 나갔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곧 여객선으로 돌아 왔다.[20]

A′

<u>낫불</u>(나폴리, Napoli)항구(港口) 도달(到達)ᄒᆞ야 〔쌍일홈〕, 잠간 하륙(下陸) 구경ᄒᆞ고

도로 빅에 올나(올라) 와셔, <u>동(東)으로만</u> 향(向)ᄒᆞ도다 〔우리 나라가 동편이라〕

(제299행~제300행)[21]

---

20)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앞의 논문, p.160. 앞으로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에 대한 인용은 이 논문에 따르기로 하며, 이후에는 <서사록>, <셔유견문록>과 페이지 수만 밝히기로 한다.

위의 A는 <서사록>에서 발췌한 부분이며, A′는 <셔유견문록>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두 예문은 서로 같은 날짜에 같은 대상, 같은 행위를 묘사한 부분인데, A와 A′는 한눈에 보아도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A에서 A′로 옮겨지는 과정 중에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요약되었다는 점이며, A는 장문의 일기 형식인데 반하여 A′는 가사의 형식을 차용하여 4.4조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A에서 A′로 바뀌면서 형식 자체가 변하였으며, A′에서는 일기 형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나 A의 앞부분에 쓰여진 '7월 10일(6. 6) 맑음'과 같은 일기문 형식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구문은 A′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위와 같은 특징들은 날씨에 관한 기록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B′

히슈(海水)는 망망(茫茫)ᄒᆞᆫ데, 파도(波濤)가 산(山) 갓(같)도다 ［물결］
살갓튼(화살 같은) 화륜션(火輪船)니, 물결을 못니겨셔(못이겨서)
이리 츌넝 져리 츌넝, ᄇᆡ사람이 졍신(精神) 일네(잃네)
만경창파(萬頃蒼波) 풍우즁(風雨中), 일편(一片) 졍신(精神)ᄲᅮᆫ이로다

(제54행~제57행)[22]

B′에서 작자는 당시 배에 승선하였으며,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세서 배가 심하게 흔들림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57행에서 작자는 '풍우즁(風雨中)'이라고 언급하며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내리는

21) <셔유견문록> p.179.
22) <셔유견문록> p.171.

상황을 표현하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날씨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57행은 <셔유견문록>에서 가장 정확히 날씨가 묘사된 부분이라 볼 수 있으며, 이처럼 명확하게 날씨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은 다른 곳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작자가 <서사록>에서 언급하였듯이 후손들이 읽기 쉽도록 요약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서사록>이 <셔유견문록>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통해 작자는 기행 내용 자체에 초점을 두었으며 날짜나 날씨 등 일기 기록문에 나타나는 형식적인 측면은 과감히 생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사록>이 <셔유견문록>으로 요약되고 해석되면서 <셔유견문록>에는 <서사록>의 내용적인 공통점만 남게 되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의 내용의 차이이다. <서사록>의 경우 작자는 최대한 주관성을 배제하고 보고 겪은 사실을 소상히 기록한 반면 <셔유견문록>에는 작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 감정 등이 빈번히 드러난다. <서사록>을 요약한 것이긴 하지만 <셔유견문록>에는 <서사록>보다 작자가 보고 듣고 느낀 점과 작자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C

5월 15일(4. 8) 맑음

대내(大內)로 도착을 아뢰는 전보를 치고 집에도 편지를 보냈다. 오후 2시에 기차를 타고 퀘벡(歸伯, Quebec)항을 향해 가다가 베이커(核峙, Baker)산에 도착했다. 이곳은 산마루가 지극히 높아서 기차선로가 밴쿠버항으로부터 베이커산 까지 지형에 따라 꾸불 꾸불 뻗어 있다. 혹은 산을 돌아 계곡을 껴안기도 하고, 혹은 강을 따라 철교를 건느기도 하고, 혹은 구름다리와 축대를

넘기도 하며, 혹은 산을 뚫어 터널을 통과해서 수천리를 달리고 있었다. 인공(人工)과 물력(物力)의 조화가 아닌가. 하늘은 강산을 만들고, 사람은 철로를 만들었다고 말할 만하다.…[23]

C′

여관(旅館) 슉소(宿所) ᄒᆞ연후에, 화륜거(火輪車, 기차)에 올나 보셰
봉명사신(奉命使臣) ᄃᆡ졉(待接)으로, 특별거(特別車)가 분명(分明)ᄒᆞ다 〔상등 화륜거〕
어렵도다 어렵도다, 일만여리(一萬餘里) 쳘노(鐵路)로다 〔화륜거 가는 길〕
쳘노(鐵路) 공녁(工役) 볼작시면, 귀신인가 사람인가
산(山)을 뚜러(뚫어) 길을 ᄂᆡ고, 강(江)을 건너 다리 놋코(놓고)
산은 놉고 골은 깁퍼(깊어), 안고 돌고 지고 도ᄂᆡ
밤낫(낮) 가는 긔ᄎᆞ상(汽車上)에, 얀젼(眼前) 경ᄀᆡ(景槪) 평논(評論)ᄒᆞ셰 〔말한단 말〕

(제63행~제69행)[24]

C와 C′는 서사록의 5월 15일 내용이며, 기차를 타고 베이커산(Baker)을 구경하고 그 풍경에 대하여 서술한 부분이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쓴 글이지만 사뭇 느낌이 다르다. C는 기차를 타고 베이커산을 지나며 관찰한 내용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작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C′의 내용은 C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C에서 작자는 벤쿠버항부터 베이커산까지 지형에 따라 기차 선로가 뻗어 있다고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한 반면 C′에서 작자는 65행의 '어렵도다 어렵도다,

23) <서사록> p.141.
24) <셔유견문록> p.171.

일만여리(一萬餘里) 철노(鐵路)로다'라는 부분을 통하여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어렵도다 어렵도다'의 경우 서양의 뛰어난 철로 기술에 대하여 작자의 주관이 개입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C′에만 서술되어 있을 뿐 C에서는 이러한 작자의 생각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 C′의 66행인 '철노(鐵路) 공녁(工役) 볼작시면, 귀신인가 사람인가'도 마찬가지이다. 철로 공사 한 것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신기하여 귀신이 한 것인지, 사람이 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여진 구문이다. 작자는 이 부분에서도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데, 철로를 보며 그 놀라움을 '귀신인가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통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서사록>의 C를 보면 작자는 '사람은 철로를 만들었다고 말할 만하다.'라는 부분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만을 서술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다른 예문을 살펴보자.

D

6월 19일(5. 14) 흐림

…이 누각앞 좌우에는 10여길이나 되는 쇠시렁(鐵架)이 있고, 쇠시렁에는 큰 철바퀴(鐵輪)가 달려 있었는데, 바퀴안에는 무수한 작은 바퀴가 들어 있었다. 주렁주렁 달린 것이 마치 거위 알과도 같았다. 거위 알 같은 화등(火燈)은 구슬을 던져 두고 콩을 흩뿌려 놓은 것같다. 흔들거리면서 번쩍번쩍 빛나다가 조금 있으려니 '탁탁(坼坼)'하는 소리가 들렸다. 천만개의 화등이 갈라지고 쪼개지며 화광이 작열하면서 폭발하는 것이 분수기(噴水器)에서 물을 뿜어내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이 그치자 화륜(火輪)은 갑자기 변하여 한마리 큰 코끼리로 화하지 않는가. 긴 코와 늘어뜨린 귀로 어슬렁어슬렁 움직이는 것이 살아 있는

짐승과 똑 같았다. 또 한차례 포성이 울리더니 평지로부터 불화살이 어지러이 날아 오르고 오른쪽 쇠시렁의 큰 바퀴(大輪)위에서 한송이 모란이 피어났다. 잎은 푸르고 꽃은 붉은데 나비가 날며 꽃을 희롱하고 있다. 또 그 앞에는 높이가 10여장이나 되는 수백칸의 큰 쇠시렁이 있었다.

갑자기 포성이 울리자 그 쇠시렁 위에 일제히 불이 켜지면서 두 화인(火人)이 산악같이 우뚝 섰다. 자세히 보니 바로 영국의 황제와 황후였다. 잠시도 쉴새 없이 화포가 터지고 수백칸 쇠시렁위에서 '一'자형의 긴 불이 터져나왔다. 그 불기운(火勢)은 천길 절벽위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듯 내리 쏟아졌는데, 반쪽은 흰빛 폭포요 반쪽은 누런빛 폭포였다. 폭포수 소리가 세차게 일어나고 눈발이 공중에 가득하게 날리니 귀신의 글재주로도 이 모양을 방불하게 표현할 수 없으리라.····[25]

D′

슈졍궁(水晶宮) 다다르니, 특별상좌(特別上座) 안져보니 〔제일 상좌〕

유리집 쳔만간(千萬間)에, 누(樓)아릐가 화장(火場)일셰

일셩포양(一聲砲響) 나는 곳에, 승긔젼(神機箭)이 올나(올라) 간다〔살 갓치(같이) 올나 가넌(가는) 불〕

산악(山岳)을 흔드난듯(흔드는 듯), 강하(江河)가 끌넌듯시(끓는듯이)

예셔도 탕탕 졔셔도 탕탕 그져 탕 또 탕탕, 안식(安息)ᄒᆞ다가

청쳔(靑天) 반공즁(半空中)에 오ᄉᆡᆨ(五色)비가 나리난듯, 또 씩식 탕탕

이 쳔지(天地)가 모도 다 불쳔지(天地)라, 연념(煙焰)이 창쳔(蒼天)

혹(或) 목단화상(牧丹花上)에 호졉(胡蝶)이 왕ᄂᆡ(往來)ᄒᆞ며, 풍악(風樂)이 진동(振動)

혹(或) 쳔장졀벽(千丈絶壁)에 폭포슈(瀑布水), 나리 쏫치난(솟치는) 모양(模樣)도 되고

최말(最末)의난(에는) 영황(英皇) 영후(英后), 완연(宛然)히 안진(앉은) 모양

25) <서사록> pp.151~152.

(模樣)도 되니

신긔(神奇)도 하고 이상(異常)도 ᄒᆞ거이와, 그져 두 눈 캉캄 귀가 먹먹

쳐음 보지 쳐음 보지, 불노리론 쳐음 보ᄂᆡ

(제255행~제266행)[26]

D와 D′는 6월 19일에 보았던 불꽃놀이에 관하여 관찰하고 서술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와 불꽃놀이를 보는 당시 작자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어 이를 통하여 독자에게 불꽃놀이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며, 4·4조의 형식상 특징을 파괴하면서까지 작자의 흥분된 감정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셔유견문록> 중 가장 백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셔유견문록>에서 작자는 불꽃놀이를 관찰하면서 제258행의 '산악(山岳)을 흔드난듯(흔드는 듯), 강하(江河)가 끌넌듯시(끓는듯이)'이라던가 제260행의 '쳥쳔(靑天) 반공즁(半空中)에 오ᄉᆡᆨ(五色)비가 나리난듯, ᄯᅩ ᄭᅵᆨᄉᆡᆨ 탕탕', 제261행의 '이 쳔지(天地)가 모도 다 불쳔지(天地)라, 연념(煙焰)이 창쳔(蒼天)', 제262행부터 263행까지의 '혹(或) 목단화상(牧丹花上)에 호졉(胡蝶)이 왕ᄂᆡ(往來)ᄒᆞ며, 풍악(風樂)이 진동(振動) 혹(或) 쳔장졀벽(千丈絶壁)에 폭포슈(瀑布水), 나리 ᄭᅩᆺ치난(솟치는) 모양(模樣)도 되고'라는 내용을 통하여 현재 보고 있는 불꽃에 대한 비유를 나타내었으며, 제265행의 '신긔(神奇)도 하고 이상(異常)도 ᄒᆞ거이와, 그져 두 눈 캉캄 귀가 먹

26) <셔유견문록> pp.177~178.

먹’ 구문을 통하여 불꽃놀이를 보고 자신이 느낀 주관적 감정을 신기하고 이상하다고 표현하였다.

즉 <셔유견문록>의 불꽃놀이 장면에서 작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불꽃놀이에 대하여 묘사를 통하여 독자에게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서술하여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잘 드러낸다. D에서도 D′와 같이 비유법을 사용한 구문은 종종 나타난다. ‘주렁주렁 달린 것이 마치 거위 알과도 같았다’, ‘거위 알 같은 화등(火燈)은 구슬을 던져 두고 콩을 흩뿌려 놓은 것같다’, ‘분수기(噴水器)에서 물을 뿜어내는 것과 같다.’, ‘두 화인(火人)이 산악같이 우뚝 섰다.’, ‘그 불기운(火勢)은 천길 절벽위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듯 내리 쏟아졌는데….’ 등 몇몇 구문에서 비유법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D′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D′에서 독자들은 보다 생생하고 눈앞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지만 D에서는 D′만큼의 현장감은 느낄 수 없다. 왜냐하면 D′에서는 작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상당히 자주, 적극적으로 표현되었으며 많은 수사법이 사용된 반면 D에서 작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된 표현 형식도 마찬가지이다. D′에서 작자는 반복법을 사용하여 구문의 흥을 돋운다. 제259행 ‘예셔도 탕탕 졔셔도 탕탕 그져 탕 또 탕탕, 안식(安息)ᄒᆞ다가’, 제266행 ‘쳐음 보지 쳐음 보지, 불노리론 쳐음 보ᄂᆡ’처럼 반복법을 사용하여 작자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독자에게 흥미를 갖게 한다.

다른 차이점으로는 한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어렵거나 생소한 단어나

기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주석이 달아놓았다는 점이다. <서사록>은 한문으로 기행 내용에 관하여 기록만 되어 있을 뿐 기타 부수적인 설명은 일절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셔유견문록>은 한글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자가 생각하기에 독자에게 어려운 단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따로 설명을 덧붙였다.

우선 예문을 살펴보자면 제78행 '그럭 져럭 삼일(三日)만에, 햑틔영(核峙嶺, 베이커산) 너머시니(넘었으니) 〔산고ᄀᆡ 일홈〕', 제83행 '디명(地名)은 커ᄂᆡᄃᆡ(캐나다)요 〔쌍일홈〕, 폭포(瀑布) 유명(有名) 마졔포(馬蹄布)라 〔폭포슈 일홈〕', 제93행 '여셧 시각(時刻) 건쓴 건쓴, 귀빅항(歸伯港, 퀘벡, Quebec)에 도달(到達)이라 〔쌍일홈〕', 제292행 '법국(法國) 지경(地境) 의ᄃᆡ리(義太利)을 지나셔셔 〔나라 일홈〕, 쎄노화(제노바, Genova)에 다다러셔〔쌍일홈〕' 등의 여러 부분에서 작자는 지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명의 경우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명이 사용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0여개 나라를 기행하면서 작자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유명사를 이처럼 주석을 통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작자가 장소 고유명사를 주석으로 표기한 부분과 함께 어려운 한자어를 풀어 쓴 부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제5행 '교린지의(交隣之誼) 돈밀(敦密)ᄒᆞ니〔셔로 졍의(情誼)가 잇단 말〕, 경조(慶弔) 상문(相問) 폐(廢)할손가', 제65행 '어렵도다 어렵도다, 일만여리(一萬餘里) 쳘노(鐵路)로다 〔화륜거 가는 길〕', 제69행 '밤낫(낮) 가는 긔ᄎᆞ상(汽車上)에, 얀젼(眼前) 경ᄀᆡ(景概) 평

논(評論)ᄒᆞ셰 〔말한단 말〕', 제86행 '평지졀벽(平地絶壁) 써러져셔, 단안(斷岸)이 빅쳑(百尺)이라 〔써러진 언덕〕', 제144행 '도로상(道路上)에 박셕(薄石) 깔고 〔널불(얇은) 돌〕, ᄉᆞ이 ᄉᆞ이 슈목(樹木)이라' 등의 구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작자는 독자를 고려하여 한문에서 한글로 옮기는 과정 중에도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는 단어에 독자가 읽기 쉽게 설명을 덧붙여서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작자는 신식문물 또는 일반 독자들이 잘 알기 어려운 생소한 부분에 최대한 많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17행 'ᄉᆡ문(새문, 敦義門 西大門)밧(밖) 썩(썩) 나셔셔, 졍거장(停車場) 다다르니 〔화륜거(火輪車) 타난 마당〕'에서 당시 대중교통이 서양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던 정거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105행에서도 나타난다. '반졉관(伴接官)이 인도(引導)ᄒᆞ야 〔버실(벼슬) 일홈〕'에서 반접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독자를 위해 벼슬의 이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111행의 '쵸인종(招人鐘) 젼긔등(電氣燈)은 〔사람 부르난 종, 졀노 케지난(켜지는) 등〕, 가지 가지 긔이(奇異)ᄒᆞ다'에서도 작자의 이러한 설명은 잘 나타난다. 특히 초인종이나 전기등은 당시 우리나라에 흔치 않던 문물로, 작자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연유(緣由)로 작자는 독자를 고려하여 초인종과 전기등이라는 낯선 서양의 신식문물을 사람을 부르는 종, 저절로 켜지는 등이라는 설명을 통하여 독자에게 소개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처럼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표기 문자와 형식의 변화를 통해 둘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으

며, <서사록>은 <서사록>대로의 고유한 표현방식이, <셔유견문록>은 그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이 사용된 점을 통하여 <서사록>과 <셔유견문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보았다. 두 작품 사이에는 세계견문록이라는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지만 서로 각기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의 대비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셔유견문록>은 <서사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사체로 재창작한 것이다. 이는 한문 기록물인 <서사록>이 한글 가사인 <셔유견문록>으로 재해석되었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틀과 내용에서는 서로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A

4월 10일(3. 3) 맑고 바람

해가 진 뒤에 우리 네 사람은 거리로 나가 한가하게 노닐었다. 도로에는 한 점의 티끌이나 오물이 없었다. 작은 도랑과 큰 개울의 구획이 분명하고, 진귀한 나무와 아름다운 화초가 가지런히 정열되어 있어서 맑은 그늘이 땅에 가득하다. 저자의 가게(市肆)들이 서로 잇닿아 즐비하고 상품이 산더미처럼 풍부하다. 노래 부르며 노는 극장(戱場)에서는 남녀가 어울려 즐거히 놀고 있어서 그 기상(氣像)이 태평(太平)스러워 보였다. 항구안의 선박들은 갈대처럼 늘어 서서 밤이면 수백 수천의 등불이 수면위를 눈이 부시도록 비추고 있었다.[27]

A′

장긔항(長崎港) 이경(異景) 좃타니(좋다니), 일ᄎᆞ(一次) 류람(遊覽)ᄒᆞ야 보셰

산쳔(山川)이 슈려(秀麗)ᄒᆞ고, 도로(道路)가 졍솨(精灑)ᄒᆞ며

<u>긔화요쵸</u>(琪花瑤草)와 진슈가목(珍獸嘉木)과 〔화쵸〕, <u>가루</u>(歌樓) <u>희ᄃᆡ</u>(戱臺) 난 긔상(氣象)이 ᄐᆡ평(太平)이요 〔노릭ᄒᆞ고 침(춤) 츄난 데〕

27) <서사록> p.136.

항구(港口) 부두(埠頭) 동셔(東西)안에 〔빅타난 데〕, 윤션(輪船)이 슈풀(수풀) 갓다(같다)

밤낫(밤낮) 경ㄱ(景概) 보ㅈㅎ면, 면(몇)날 될지 모르것네

(제40행~제44행)[28]

A와 A′는 작자가 영국으로 가는 도중 나가사키항(長崎港)에 들러 일행과 함께 산책하며 관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A는 <서사록>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이 4월 10일의 기록은 총 6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A′도 이와 비슷하게 총 5행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서술하였다.

한 문장씩 살펴보자면 우선 A의 첫 번째 문장인 '해가 진 뒤에 우리 네 사람은 거리로 나가 한가하게 노닐었다.'는 A′의 1행 '장긔항(長崎港) 이경(異景) 좃타니(좋다니), 일ㅊ(一次) 류람(遊覽)ㅎ야 보셰'와 대응됨을 알 수 있으며, A의 두 번째 문장 '도로에는 한점의 티끌이나 오물이 없었다.'는 A′의 2행 '산쳔(山川)이 슈려(秀麗)ㅎ고, 도로(道路)가 졍솨(精灑)ㅎ며'와 대응된다. 또한 A의 '진귀한 나무와 아름다운 화초가 가지런히 정열되어 있어서 맑은 그늘이 땅에 가득하다.'와 '노래 부르며 노는 극장(戱場)에서는 남녀가 어울려 즐거히 놀고 있어서 그 기상(氣像)이 태평(太平)스러워 보였다.'는 A′의 '긔화요쵸(琪花瑤草)와 진슈가목(珍獸嘉木)과 〔화쵸〕, 가루(歌樓) 희ㄷ(戱臺)난 긔상(氣象)이 ㅌ평(太平)이요 〔노리ㅎ고 침(춤) 츄난 데〕'와 대응되며 A의 마지막 문장인 '항구안의 선박들은 갈대처럼 늘어 서서 밤이면 수백 수천의 등불이 수면위를 눈이 부시도록 비추고 있었다.'는 A′의 '항구(港口) 부두(埠頭) 동셔(東西)안에 〔빅타난 데〕,

28) <셔유견문록> p.170.

윤션(輪船)이 슈풀(수풀) 갓다(같다)'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셔유견문록>은 <서사록>의 내용을 약 80% 가깝게 담고 있는 것이다. <서사록>의 4월 10일 기록은 <셔유견문록>으로 해석되면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한문 일기라는 <서사록>의 특성상 <셔유견문록>으로 해석되면서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점이 변화 중 하나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B

4월 15일(3. 8) 맑음

오전 9시에 요코하마(橫濱)항에 도착해서 미국 상인의 여관 그랜드 호텔(그랑도 호테루, Grand Hotel)에 투숙했다. 대궐로 전보를 치고 집에도 편지를 부쳤다.[29]

B′

승션(乘船)한지 삼일(三日)만에, 횡빈항(橫濱港)에 도박(到泊)이라 〔일본쌍〕

상등(上等) 여관(旅館) ᄉᆞ쳐(사처)ᄒᆞ니 〔쥬막〕, 공괴(供饋) 범졀(凡節) 거룩ᄒᆞ다

(제46행~제47행)[30]

작자가 요코하마(橫濱)항에 도착하여 숙소에 묵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사록>의 4월 15일 내용도 단 2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셔유견문

29) <서사록> p.137.
30) <셔유견문록> p.170.

록>에서도 마찬가지로 2행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용부분에서 살펴보자면 B에서 작자가 오전 9시에 요코하마에 도착했다는 내용은 B′의 ‘승션(乘船)한지 삼일(三日)만에, 횡빈항(橫濱港)에 도박(到泊)이라 ［일본쌍 ］’와 비슷한 내용이며, 그랜드호텔에 투숙했다는 내용은 ‘상등(上等) 여관(旅館) ᄉᆞ쳐(사처)ᄒᆞ니 ［쥬막］’과 비슷한 내용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C

8월 19일(7. 16) 맑음

오후 2시에 우리 배(大東丸)는 목포(木浦)에서 잠시 정박했다가 곧 출항했다.[31]

C′

슐넝 슐넝 ᄇᆡᄭᆡ여라, 목포항(木浦港)을 지나구나 ［쌍일홈］(제409행)[32]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다. 작자가 목포에 갔다는 내용이다. 8월 19일 <서사록>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셔유견문록> 409행의 내용도 비슷하다. 분량 또한 C와 C′ 모두 간단하게 1문장과 1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서사록>에서 <셔유견문록>으로 해석되면서 작자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나 감정이 <서사록>보다 많이 서술된 점에 대해 언급했었

31) <서사록> p.167.
32) <셔유견문록> p.182.

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작자는 C에서 오후 2시에 목포에 정박했다가 곧 출항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서술하고 있는 반면 C′에서 목포항을 지난다는 객관적 사실 이외에 자신의 주관인 '슐넝 슐넝 ᄇᆡ씌여라'라는 문장을 서술하였다. 이는 고향에 가까워진 작자의 들뜬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은 같은 대상을 관찰하고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서술한 내용이지만 형식이 바뀌면서 내용상 서술의 차이가 나타난다. 작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서사록>이 <셔유견문록>으로 재해석되면서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분은 작품의 분량에 비해 다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부분에 나타난 작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면 작자가 유사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이유는 아마 내용에 부가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내용을 탈락시킨다면 문맥상 어색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내용상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가설명을 할 정도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작자는 해당 몇몇 부분을 해석 과정에서 그대로 남겨 놓았을 것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내용과 틀은 <서사록>과 <셔유견문록> 모두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내용상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으며 이제부터 그 내용 변화의 경우를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내용 변화 양상에는 <서사록>에 기록된 것과 <셔유견문록>에 기록된 것이 순서가 바뀐 경우, <서사록>이 <셔유견문록>으로 재해석 되면서 내용이 추가된 경우, <서사록>이 <셔유견문록>으로 재해석되면서 내용이 탈락된 경우, <서사록>이 <셔유견문록>으로 재해석되면서 내용이

요약된 경우를 들 수 있다.[33]

<서사록>이 해석과정을 거치고 <셔유견문록>으로 재탄생하게 되면서 형식과 내용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본 장에서는 내용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보고자 한다.

1. 순서가 변경된 경우

우선 처음 살펴볼 양상은 순서가 변경된 경우이다. 순서가 변경 경우라는 것은 <서사록>에 기록된 날짜와 <셔유견문록>에 기록된 순서가 바뀐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양상은 작품 내에서 단 두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에서 자주 나타나는 양상은 아니지만 해석 과정 중 뚜렷하게 나타난 양상이기 때문에 본 장에서 이 양상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작자는 의도적으로 <서사록>에 기록된 순서를 변경하여 <셔유견문록>으로 해석하였는데, 우선 예문을 살펴보자.

A

6월 19일(5. 14) 흐림

….구경꾼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윽고 군악 연주가 끝나자 갑자기 화포(火砲) 터지는 소리가 몇차례 들리더니 불화살(火箭)이 평지로부터 수많은 나

33)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양상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용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총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뭇배(林船)모양으로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공중에서 포성이 어지럽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불화살이 갈라지고 흩어지며 내려오니 하늘에서 오색 불비(火雨)가 내리는 것같고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하다. 이와같은 불꽃놀이가 반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이 누각앞 좌우에는 10여길이나 되는 쇠시렁(鐵架)이 있고, 쇠시렁에는 큰 철바퀴(鐵輪)가 달려 있었는데, 바퀴안에는 무수한 작은 바퀴가 들어 있었다. 주렁주렁 달린 것이 마치 거위 알과도 같았다. 거위 알 같은 화등(火燈)은 구슬을 던져 두고 콩을 흩뿌려 놓은 것같다. 흔들거리면서 번쩍번쩍 빛나다가 조금 있으려니 '탁탁(坼坼)'하는 소리가 들렸다. 천만개의 화등이 갈라지고 쪼개지며 화광이 작열하면서 폭발하는 것이 분수기(噴水器)에서 물을 뿜어내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이 그치자 화륜(火輪)은 갑자기 변하여 한마리 큰 코끼리로 화하지 않는가. 긴 코와 늘어뜨린 귀로 어슬렁어슬렁 움직이는 것이 살아 있는 짐승과 똑 같았다. 또 한차례 포성이 울리더니 평지로부터 불화살이 어지러이 날아 오르고 오른쪽 쇠시렁의 큰 바퀴(大輪)위에서 한송이 모란이 피어났다. 잎은 푸르고 꽃은 붉은데 나비가 날며 꽃을 희롱하고 있다. 또 그 앞에는 높이가 10여장이나 되는 수백칸의 큰 쇠시렁이 있었다.

갑자기 포성이 울리자 그 쇠시렁 위에 일제히 불이 켜지면서 두 화인(火人)이 산악같이 우뚝 섰다. 자세히 보니 바로 영국의 황제와 황후였다. 잠시도 쉴새 없이 화포가 터지고 수백칸 쇠시렁위에서 '一'자형의 긴 불이 터져나왔다. 그 불기운(火勢)은 천길 절벽위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듯 내리 쏟아졌는데, 반쪽은 흰빛 폭포요 반쪽은 누런빛 폭포였다. 폭포수 소리가 세차게 일어나고 눈발이 공중에 가득하게 날리니 귀신의 글재주로도 이 모양을 방불하게 표현할 수 없으리라.····[34]

34) <서사록> pp.151~152.

6월 23일(5. 18) 흐리다 맑음

영국 황태자궁의 사실(私室)을 방문했는데, 악수로 인사를 나눈 다음 앉아서 이야기했다. 황태자의 거처는 부유하고 화려했다. 과연 “삶은 기(氣)를 바꾸고 먹는 것은 몸을 바꾼다”[35] 는 느낌이다. 황태자와 헤어져서 여관에 돌아오니 황태자는 명함(名帖)을 보내면서 우리의 황태자궁 방문에 대해 경의를 표했고, 몸소 나아가서 인사드려야 마땅하나 스스로 바쁜 일정 때문에 성의를 다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것이었다.

오늘부터 어주(御廚: 수라를 만드는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다. 버킹엄(벅킹, Buckingham Palace)궁전에서 친왕이 연회를 베푼다는 것이다. 영국 황제는 삼가하고 절제함이 있어서 친임(親臨)하지 못하고 황후는 친임했다. 주석인 황태자는 태자비를 동반하고 참석했다. 이날 좌석차례를 보면 일본 친왕[36]은 제3좌로서 황태자와 같은 식탁에 앉았다. 우리 나라 친왕(특명부영대사 이재각)은 제4좌로서 태자비와 같은 식탁이었다. 청국 친왕은 제6좌였다. 연회를 끝내고 나서 네 행인은 황후를 알현했다. 오후 12시에 여관으로 돌아 왔다.[37]

A′

양녁(陽曆) 뉵월(六月) 이십삼일(二十三日), 영황(英皇) 영후(英后) 청쳡(請牒)으로 〔청ᄒᆞ난 편지〕

각국(各國) 사신(使臣) 졔회(齊會)ᄒᆞ야〔모도(모두) 뫼야싼(모였단) 말〕, ᄃᆡ연(大宴)을 ᄇᆡ셜(排設) 홀ᄉᆡ〔잔치〕

잔치 ᄇᆡ포(排布) 볼작시면, 팔션식상(八仙食床) 일곱인ᄃᆡ 〔상일홈〕

사신(使臣) 좌차(座次) 마련ᄒᆞ야 〔안진(앉은) 차례〕, 차려 차려(차례) 안질(앉을) 젹(적)에

35)『孟子』권 13, 盡心 上, “居移氣養移體"

36)『明治編年史』(명치편년사편찬회, 1936), 권 11, p. 406.「1902. 4. 20, 時事」.
일본은 영국 황제 대관식에 小松宮彰仁 친왕을 파견했다.

37) <서사록> p.153.

제일상(第一床)은 영황데(英皇帝) 쥬셕(主席)ᄒᆞ고 〔쥬인(主人) 노릇 한단 말〕, 각국(各國) ᄉᆞ신(使臣) 둘너(둘러) 안고(앉고)

제이상(第二床)은 영황후(英皇后) 쥬셕(主席)ᄒᆞ고, 각국 사신 둘너 안고

제삼상(第三床)은 황ᄐᆡᄌᆞ(皇太子) 쥬셕(主席)ᄒᆞ고, 각국(各國) 사신(使臣) 둘너 안고

제ᄉᆞ상(第四床)은 ᄐᆡᄌᆞ비(太子妃) 쥬셕(主席)ᄒᆞ고, 각국(各國) 사신(使臣) 둘너 안져

우리 좌ᄎᆞ(座次) 어딜넌고(어디런고), ᄐᆡᄌᆞ비(太子妃)와 겸상(兼床)이라

영화(榮華)로다 영화(榮華)로다, 봉명사신(奉命使臣) 영화(榮華)로다

잔치 긔구(器具) 거룩ᄒᆞ다, 슌금(純金) 긔명(器皿) 금(金)슈져(수저)라

긔취차포(旣醉且飽) 하년(한) 후의, 사은퇴귀(謝恩退歸) ᄒᆞ얏고나

사신(使臣) 잔치 녜필(禮畢)ᄒᆞ니 〔다 되야싼(되었단) 말〕, 자금이후(自今以後) 한가(閑暇)ᄒᆞ다

(제228행~제240행)[38]

이리 심회(心懷) 산란(散亂)ᄒᆞᆯ졔, 반졉관(伴接官)이 말ᄉᆞᆷᄒᆞ되

금야(今夜) 삼경(三更) 슈졍궁(水晶宮)에 〔집 일홈(이름)〕, 불노리가 장(壯)ᄒᆞ오니

사신(使臣) 회포(懷抱) 위로(慰勞)ᄒᆞ야, 구경가셔 구경가셔

그말 듯고 반기ᄒᆞ야, 쥭장(竹杖)으로 운동(運動)ᄒᆞ야

슈졍궁(水晶宮) 다다르니, 특별상좌(特別上座) 안져보니 〔졔일 상좌〕

유리집 쳔만간(千萬間)에, 누(樓)아릐가 화장(火場)일셰

일셩포양(一聲砲響) 나는 곳에, 승긔젼(神機箭)이 올나(올라) 간다〔살 갓치(같이) 올나 가넌(가는) 불〕

산악(山岳)을 흔드난듯(흔드는 듯), 강하(江河)가 끌넌듯시(끓는듯이)

예셔도 탕탕 졔셔도 탕탕 그져 탕 ᄯᆞ 탕탕, 안식(安息)ᄒᆞ다가

청쳔(靑天) 반공즁(半空中)에 오ᄉᆡᆨ(五色)비가 나리난듯, ᄯᆞ 씩식 탕탕

38) <셔유견문록> pp.176~177.

이 쳔지(天地)가 모도 다 불쳔지(天地)라, 연념(煙焰)이 창쳔(蒼天)
혹(或) 목단화상(牧丹花上)에 호졉(胡蝶)이 왕ᄂᆡ(往來)ᄒᆞ며, 풍악(風樂)이 진동(振動)
혹(或) 쳔장졀벽(千丈絶壁)에 폭포슈(瀑布水), 나리 쏫치난(솟치는) 모양(模樣)도 되고
최말(最末)의난(에는) 영황(英皇) 영후(英后), 완연(宛然)히 안진(앉은) 모양(模樣)도 되니
신긔(神奇)도 하고 이상(異常)도 ᄒᆞ거이와, 그져 두 눈 캉캄 귀가 먹먹
쳐음 보지 쳐음 보지, 불노리론 쳐음 보ᄂᆡ

(제251행~제266행)[39]

A는 <서사록>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한 부분이며 A′는 <셔유견문록>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서사록>의 6월 19일 내용은 보면 작자 일행이 수정궁에 가서 구경한 불꽃놀이를 보고 관찰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한 내용이며, 6월 23일 내용은 버킹엄 궁전에서 친왕이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여 관찰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셔유견문록>으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었다. A′를 보면 제228행부터 240행까지 내용이 버킹엄 궁전 연회에 초대받아 각국 사신들과 함께하는 내용이며, 251행부터 266행까지 내용이 수정궁에 방문하여 구경한 불꽃놀이에 대해 서술한 내용이다. 연회 부분과 불꽃놀이 부분이 서로 순서가 바뀐 것이다. 정리해본다면 A의 내용과 날짜를 기준으로 A의 불꽃놀이 부분은 6월 19일, 연회 부분은 6월 23일인데, A′의 연회 내용은 228행부터 240행(6월 23일), 불꽃놀이 내용은 251행~266행(6월 19일)

39) <셔유견문록> pp.177~178.

이다.

이렇게 작자가 <서사록>에서 <셔유견문록>으로 재해석하는 과정 중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꾼 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자의 순서 변화 의도는 제241행부터 제250행까지의 내용에서 기인한다. 해당 행을 살펴보자.

낫지(낮이)면 운동(運動)ᄒᆞ고 밤이며난 외롭도다
만니타국(萬里他國) 이ᄂᆡ 몸니(몸이), ᄀᆡᆨ회(客懷)가 날노 나ᄂᆡ
야도(夜到) 삼경(三更) 젼젼시(輾轉時)에, 명월(明月)이 만졍(滿庭)이라
창문(窓門)을 열드리고(열어 두고), ᄇᆡᆨ옥(白玉) 계상(階上) ᄇᆡ회(徘徊)ᄒᆞ니
ᄉᆞ가보월 쳥소립(思家步月 靑霄立)에 〔달밤에 집 ᄉᆡᆼ각ᄒᆞᆫ단 말〕, 심혼(心魂)이 살어(사라)진다
다라(달아) 다라(달아) 발근(밝은) 다라(달아), 고국산쳔(故國山川) 빗친(비친) 다라(달아)
다라 다라(달아) 발근(밝은) 다라, 우리 문졍(門庭) 빗친(비친) 다라
다라 다라 발근 다라, 우리 부모(父母) 안녕(安寧)헌가
다라 다라 발근 다라, 우리 쳐ᄌᆞ(妻子) 잘 잇던가
다라 다라 발근 다라, 소식(消息) 잠간(暫間) 젼(傳)ᄒᆞ여라

(제241행~제250행)[40]

위의 241행부터 250행 부분은 <서사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작자의 감정이 서술된 부분이다. 제240행과 241행을 살펴보면 작자는 '사신(使臣) 잔치 녜필(禮畢)ᄒᆞ니 〔다 되야싼(되었단) 말〕, 자금이후(自今以後) 한가

40) <셔유견문록> p.177.

(閑暇)ᄒᆞ다', '낫지(낮이)면 운동(運動)ᄒᆞ고 밤이며난 외롭도다'라고 하였다. 이는 작자가 잔치가 끝나고부터 일정이 없이 한가하며, 평소 낮에는 활동을 하지만 밤에는 외롭다고 서술한 것이다. 버킹엄 궁에서 베푼 연회는 아마 조찬이나 오찬이 아닌 만찬(晩餐)의 형식으로 저녁에 끝났으리라 가정한다면, 연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뒤 외로운 심정을 제241행부터 250행까지 기록한 것이다. 그 다음 제251행에서 작자는 '이리 심회(心懷) 산란(散亂)ᄒᆞᆯ졔, 반졉관(伴接官)이 말ᄉᆞᆷᄒᆞ되'라고 서술하고 있다. 고향생각과 가족생각에 심란한 심정이던 작자에게 마침 반접관이 찾아와 수정궁에서 열리는 불꽃놀이에 초대한다. 작자는 <서사록>에 배치된 일정의 순서를 바꾸어 <셔유견문록>에서는 연회에 다녀온 뒤 밤에 작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심란한 마음의 환기 수단으로 불꽃놀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순서를 바꾸어 서술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부분을 살펴보자.

B

6월 26일(5. 21) 맑음

대관 예식이 이미 연기되자 각국의 경축사절이 차례로 귀국하기 시작했다. 우리 일행도 본국 대내(大內)로 귀국해도 좋은가고 전보를 쳤다. 이는 예식행사가 무기연기되었기에 귀국 복명을 청하는 전보였다. 전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 황제의 병환이 한결같이 차도가 없어서 대관예식이 무기연기 되었습니다. 궁내대신이 칙서를 받들고 와서 각국 사절들을 위로하고 있지만 실은 구라파의 경축사절단은 각기 귀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은 감히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 빨리 귀국하라는 칙명을 내리시기를 엎드려 바라나이

다.”…… 41)

7월 1일(5. 26) 흐리다 비

오후 11시에 영국 황제가 관병식(觀兵式)을 행한다고 청첩이 왔다. 우리 네 일행은 연병장(鍊武場)에 입장했다. 미리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기다려야하므로 열을 지어 앉아보니 영국 병정과 각 속국의 병정이 대오를 지어 벌여 서고 있다. 이를 지휘할 장령(將領)과 위관(尉官)은 융장(戎裝)을 갖추어 입고, 앞뒤 가슴을 가리는 엄심갑(掩心甲)을 입고서 말을 타고 구령(口令)을 하니 그 군용(軍容)이 정숙하다. 군대가 도열한 가운데 먼저 영국 황후가 마차를 타고 입장했다.

영국 황제는 병환 때문에 관병식에 친임(親臨)하지 못하고 그 대신 황태자가 대리로 복장을 갖추어 입고 마차를 타고 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구경하던 시민은 빽빽히 늘어서서 일제히 모자를 벗기도 하고 혹은 손수건을 흔들면서 환호했다. 산이 진동하고 바다물이 용솟음치는 듯한 환호성을 지르다가 호각소리가 한번 울리고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세번 크게 나자 시끄럽던 소리가 그쳤다. 황후와 황태자가 각 장령과 위관 몇사람을 대동하고 각 부대를 사열하고 나서 돌아와 지정된 좌석(信地)에 섰다. 군악이 우뢰 처럼 울리면서 분열식(分列式)이 거행되었다. 각 부대는 질서정연한 대오를 지어 행진하다가 황태자 앞을 지나가면서 경례를 올렸다.

열병식(閱兵式)이 끝난후 황후와 황태자는 돌아가고 병정들은 비로소 긴장을 풀었다. 우리 일행도 여관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한국공사관에 들렀다가 여관으로 돌아왔다.

오후 11시에 외부대신 사저에서 어사연(御賜宴)이 개최된다고 청첩이 왔기에 우리 일행은 참석했다. 12시에 여관으로 돌아왔다.42)

41) <서사록> p.154.
42) <서사록> p.157.

B′

본국(本國) 장졸(將卒) 장(壯)ᄒᆞᆫ 즁(中)에 〔영국〕, 이십ᄉᆞ국(二十四國) 속국(屬國) 병졍(兵丁)〔영국에 항복한 나라〕

슈풀(수풀) 쳐름(처럼) 드러셔셔, ᄃᆡ오(隊伍)가 분명(分明)ᄒᆞ다

츙창(銃槍) 금극(金戟)은 상셜(霜雪) 갓고(같고), 인마(人馬)복장(服裝)은 넘넘(凜凜)ᄒᆞ다

긋ᄭᅴ(그때) 영황(英皇) 환졀(患節) 잇셔(있어), 황ᄐᆡᄌᆞ(皇太子)가 ᄃᆡ리(代理)ᄒᆞ네

황후(皇后) 마ᄎᆞ(馬車) 션도(先導)ᄒᆞᆯ졔〔황후가 말 타고 먼져 온단 말〕, 둥두려시(덩두렷이) 안져난ᄃᆡ(앉았는데)

신슈(身手) 조흔 옥안(玉顔)이요 〔옥 갓튼(같은) 얼굴〕, ᄃᆡ례복ᄉᆡᆨ(大禮服色) 찬란(燦爛)ᄒᆞ다

황ᄐᆡᄌᆞ(皇太子)의 거둥(擧動) 보소, 집치(집채) 갓튼(같은) 말을 모라(몰아)

군장복ᄉᆡᆨ(軍裝服色) 션명(鮮明)ᄒᆞᆫᄃᆡ〔군복(軍服)하단 말〕, 풍(風采)가 늠늠(凜凜)ᄒᆞ다

구경ᄒᆞ난 쳔만빅셩(千萬百姓), 황후ᄐᆡᄌᆞ(皇后太子) 경츅(慶祝)ᄒᆞ야 〔츅슈(祝壽)〕

환셩(歡聲)이 여뢰(如雷)ᄒᆞ고 〔ᄭᅥ드난 소리〕, 긔상(氣像)이 ᄐᆡ평(泰平)이라

방포(放砲) 삼셩(三聲) 호각(號角) 일셩(一聲), 바다 갓튼(같은) 군악(軍樂)이라

각ᄃᆡ(各隊) 병졍(兵丁) 운동(運動)ᄒᆞ야 〔조련(操鍊)한단 말〕, 연무조련(鍊武操鍊)ᄒᆞ난 거동(擧動)

위의(威儀)가 슉슉(肅肅)ᄒᆞ고, 호령(號令)이 분명(分明)ᄒᆞ다

부국강병(富國强兵) 분ᄌᆡᆼ시(紛爭時)에, 셔양(西洋)에 졔일(第一)이라

이런 구경 져런 구경, 일필(一筆)노 난긔(難記)로다

(제270행~제284행)[43]

43) <셔유견문록> p.178.

영황(英皇) 병셰(病勢) 위중(危重)ᄒᆞ야, ᄃᆡ관녜식(戴冠禮式) 퇴졍(退定)이요 〔물여싼(물렸다는)말〕

사신(使臣)일은 필역(畢役)되고 〔다ᄒᆞ야단(하였다는) 말〕, 각국(各國) 사신(使臣) 도라(돌아) 가니

그런 ᄉᆞ상(事狀) 젼달(傳達)ᄒᆞ고 〔나라에 알위단(아뢴단) 말〕, 우리도 환국(還國)ᄒᆞ셰 〔조션으로 도로 온단 말〕

(제285행~제287행)

B의 6월 26일 내용은 영국황제의 병환으로 대관 예식이 연기되어 각국 사신들이 귀국하는데 작자 일행도 환국을 위해 전보를 보낸 내용이며 7월 1일에는 작자가 일행들과 함께 영국의 관병식을 구경한 내용이다. B′의 270행부터 284행까지는 작자가 관병식을 구경한 내용과 작자의 생각, 285행부터 287행까지는 작자와 일행이 귀국하기 위해 나라에 소식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 또한 A-A′예문과 마찬가지로 서로 순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B는 시간상 귀국 전보-관병식 순서이지만 B′는 관병식-귀국 전보 순서이다. 이 또한 작자의 숨은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셔유견문록>의 102행부터 291행까지는 영국 기행에 관한 내용이다. 작자는 해당 내용을 영국 기행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해당 부분을 유종(有終)의 의미로 해당 행을 삽입한 것이다.

<서사록>에서는 일기 형식으로 해당 날짜에 있었던 일정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셔유견문록>의 경우 공식기록물이 아닌 개인 창작물로의 의미가 큰 문학작품이기에 순서를 바꾸게 되면 문학적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작자는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작자의 이러한 의도는 큰 틀에서 보면 문학적 흥미를 더하기 위한 것이다. A′의 경우 앞부분에서 작자가 자신의 외로움과 그리움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를 환기할 소재로 불꽃놀이가 등장하며, B′의 경우 영국에서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순서를 관병식-귀국 전보의 순서로 배치하였다. 이처럼 작자는 시간 순서를 바꾸면서 작자의 영국 기행문을 더 탄탄한 구성으로 만들고,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면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고자 하였다.

2. 내용이 추가된 경우

다음 형태는 내용이 추가된 경우이다. <서사록>에서 <셔유견문록>으로 재창조되는 과정 중 내용이 정리되는 경우나 내용이 탈락되는 경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작자가 최대한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서술한 <서사록>과는 달리 <셔유견문록>에서 작자는 <서사록>의 객관적 사실과 함께 자신의 감정과 생각 및 의견도 서술하여 <서사록>보다 내용이 추가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 사실과 작자의 주관 이외에도 <서사록>에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기행 도중 관찰한 인상 깊은 내용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작자는 재해석 과정 중 독자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신문물이나 어려운 한자 부분에는 별도의 설명을 덧붙여 놓아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아래 예문을 보자.

A

6월 5일(4. 29) 흐리다 맑음

오전 2시에 아일랜드(愛一暖, Ireland)항구를 통과했다. 주영공사 민영돈(閔泳敦)에게 도착을 알리는 전보를 보냈다. 오후 8시에 리버풀(늬버풀, Liverpool) 항구에 도착했다.[44] 주영공사 참서관(參書官) 이한응(李漢膺, 應)과 영국 외부 참서관「포션븨」가 영접나왔다.「아들븨」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대내(大內)로 영국 도착을 알리는 전보를 보냈다.[45]

A′

션창부두(船艙埠頭) 나리시니 〔빈ᄃᆡ이난ᄃᆡ〕, 쳔만인(千萬人)이 위립(圍立)이라

영국(英國) 외부(外部) 참셔관(參書官)과 〔베실(벼슬) 일홈〕, 우리 공관(公館) 참셔관(參書官)니

부두(埠頭)에 ᄃᆡ후(待候)ᄒᆞ야 〔빈나리난 ᄃᆡ〕, 즉시(卽時) 나와 영졉(迎接)ᄒᆞᆫ다

반졉관(伴接官)이 인도(引導)ᄒᆞ야 〔버실(벼슬) 일홈〕, 여관(旅館) ᄉᆞ쳐(사처) 안흘(安歇)이라

여관(旅館) ᄇᆡ포(排布) 둘너(둘러) 보니, 굉장(宏壯)ᄒᆞ고 화려(華麗)ᄒᆞ다

---

44) *Daily Express*, London, June 6, 1902.
이재각 부영대사 일행은 캐나다 퀘벡-영국 리버풀간 정기 여객선편으로 이날 영국 항구도시 리버풀에 도착했다. 여기서 기차로 런던 시내로 향발했다.

45) <서사록> p.145.

빅옥셕(白玉石) 층계상(層階上)에, 십녀층(十餘層) 화란(華欄)이요 〔집 난간〕

유리창(琉璃窓) 분벽상(粉壁上)에, 비단장(帳)을 드리우고

팔션상(八仙床) 비단 교위(交椅) 〔밥 멉난(먹는) 상 일홈〕, 규모(規模) 잇게 버려(벌여) 녹코(놓고)

진화쵸(珍花草)며 가화쵸(佳花草)를, 빅옥분(白玉盆)에 심어 잇고

쵸인종(招人鐘) 젼긔등(電氣燈)은 〔사람 부르난 종, 졀노 케지난(켜지는) 등〕, 가지 가지 긔이(奇異)ᄒᆞ다

진슈셩찬(珍羞盛饌) 쥰비(準備)ᄒᆞ야, 셕찬(夕餐)을 지공(支供)ᄒᆞᆫ다

침상(寢牀)에 휴슉(休宿)ᄒᆞ고, 쳥신(淸晨)에 소셰(梳洗)ᄒᆞ니

영녜(怜銳)한 남녀(男女) 하인(下人), 조찬지공(朝餐支供) 등ᄃᆡ(等待)로다

(제102행~제114행)[46]

A와 A′는 서로 같은 일자의 일정을 서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분량의 차이가 나타난다. A와 A′는 작자가 리버풀에 도착하여 여관에 투숙한 내용이다. 하지만 <셔유견문록>으로 해석되면서 간단한 내용의 A는 장문의 A′로 내용이 늘어나는데, 이는 작자가 묵은 여관에 설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A에서 여관에 관한 부분은 ‘「아들븨」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라고 서술하며 굉장히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A′에서는 A와 다르게 여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작자는 영국 땅에서 처음으로 영국 여관에 묵게 된다. 투숙하게 된 여관의 모습에 대하여 작자가 시선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는데, 여관의

46) <셔유견문록> pp.172~173.

첫 느낌-층계-난간-유리창-벽-비단장-탁자-화초-초인종-전기등 순으로 여관에서 관찰한 부분을 보여주기 방식으로 작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의 모습은 당시 조선에 익숙하지 않았던 양식(洋式) 여관이었기에 작자는 여관 그 어느 곳에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관찰한 것이다. 작자는 처음 여관에 들어가서 받은 느낌을 '굉장(宏壯)ᄒᆞ고 화려(華麗)ᄒᆞ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들어서자마자 백옥으로 된 층계에 비단장에 실내에 장식용으로 진열된 여러 기화요초들은 화려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또한 작자는 A와 다르게 A′에 여러 주석들을 달아놓고 있는데 이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가령 초인종이나 전기등에는 '사람 부르난 종, 졀노 케지난(켜지는) 등'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이는 당시 서양의 신문물이 낯선 독자를 위하여 해석 과정 중 한글 설명을 덧붙였다.

B

낫지(낮이)면 운동(運動)ᄒᆞ고 밤이며난 외롭도다
만니타국(萬里他國) 이ᄂᆡ 몸니(몸이), ᄀᆡᆨ회(客懷)가 날노 나ᄂᆡ
야도(夜到) 삼경(三更) 젼젼시(輾轉時)에, 명월(明月)이 만졍(滿庭)이라
창문(窓門)을 열드리고(열어 두고), ᄇᆡᆨ옥(白玉) 계상(階上) ᄇᆡ회(徘徊)ᄒᆞ니
<u>ᄉᆞ가보월 청소립</u>(思家步月 靑霄立)에 ［달밤에 집 ᄉᆡᆼ각ᄒᆞᆫ단 말］, 심혼(心魂)이 살어(사라)
다라(달아) 다라(달아) 발근(밝은) 다라(달아), 고국산쳔(故國山川) 빗친(비친) 다라(달아)
다라 다라(달아) 발근(밝은) 다라, 우리 문졍(門庭) 빗친(비친) 다라

다라 다라 발근 다라, 우리 부모(父母) 안녕(安寧)헌가
다라 다라 발근 다라, 우리 처ᄌᆞ(妻子) 잘 잇던가
다라 다라 발근 다라, 소식(消息) 잠간(暫間) 젼(傳)ᄒᆞ여라

(제241행~제250행)[47]

이 부분은 <서사록>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셔유견문록>으로 해석되면서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다. <서사록>이 객관적 사실이 주된 내용이라면 <셔유견문록>에는 작품 중간중간 작자의 주관적 감정 또한 포함되어 있다.

작자는 객지에서의 외로운 심경을 허심탄회하게 표현하였는데, 해당 부분에서 작자는 밤에 홀로 달을 바라보며 고향생각, 가족생각을 하며 밝은 달을 기원의 대상으로 보고 달에게 보고픈 가족의 안부를 묻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다라 다라 발근 다라' 부분은 민요를 차용하였다. 이로 인해 운율감이 형성되어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이 부분은 <셔유견문록>에서 작자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C

7월 25일(6. 21) 맑음

….옛날 서역(西域)인 불국(佛國)은 이곳 항구로부터 5리 떨어져 있고 그곳에는 석가불(釋伽佛)의 불상과 무덤이 있다고 한다.

우리들은 마차를 세내었다. 소로 수레를 끄는데, 이 소의 종자는 체구가 작

47) <셔유견문록> p.177.

고 뿔은 한자가 넘었고 배와 등뼈가 꾸부정해서 낙타와 같다. 우리는 선원가운데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을 길 안내인으로 삼아 절(佛寺)에 이르렀다. 이 불당의 건축 설계는 우리나라와 같고, 불당뒤에 석대(石臺) 위에는 커다란 석탑이 서있고 사면이 3,4칸이나 되었으며 높이는 몇길이나 되어보였다. 석대위에 돌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위에 계란만한 뾰족한 첨탑을 만들어 놓고 보석을 밖아놓았으니 햇빛을 받아 찬란한 광채를 내뿜고 있다. 불조(佛祖, 석가모니)의 육신은 이 석탑안에 간직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불총(佛塚)이라 일컫고 있다. 석탑을 보고 법당으로 내려와 불상을 보고자 내려오니 긴 수염에 구랫나루를 단 상투를 튼 한 노인이 나와 우리 일행을 맞이하며 불당문을 열어주었다.

법당안으로 들어가니 또 문이 있는데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채원진 문을 열어주는데 너무나 늑장을 피웠다. 이 스님은 문은 열어주지않고 사방벽에 걸려있는 불가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그림은 선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고 음란한 자에게 화를 내린다는 내용이다. 우리 일행은 문앞의 복전함(櫝子口)에 은전 한푼씩을 넣었다. 그제사 스님은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청했다. 당상에는 불상 세개가 있는데 오른쪽 부처는 서있고, 왼쪽 부처는 앉아 있고, 중앙에는 비슴듬히 누워있는 와불(臥佛)이였다. 와불의 신체는 장대하고 길이는 두칸이 넘으며 옥색 빛깔을 발하고 있기에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로 만든 목상(木像)이었다. 그리고 와불의 눈빛이 섬광처럼 반짝이므로 물어보니 눈에 보석을 밖아 놓았다는 것이다.

석가는 인도에서 탄생했지만 머리 깍고 손톱을 자른 곳은 이곳이라고 했다. 우리들은 동쪽나라에서 나서 어릴때부터 서역 불조(佛祖)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제 직접 이곳에 와서 불상을 보니 일찍이 생각도 못했던 일이요 일대 장관이 아닐 수 없다.····48)

C′

서녁국(西域國)은 불국(佛國)이라 〔붓쳐(부처) 나라〕, 부쳐(부처) 시조(始祖)

48) <서사록> pp.163~164.

누구던고
불조(佛祖) 닉력(來歷) 말ᄒᆞᆯ진ᄃᆡᆫ 〔부처 시조〕, 셔가여라셰존(釋迦如來世尊)이라 〔붓쳐(부처) 일홈〕
셔가셰존(釋迦世尊) ᄉᆡᆼ장(生長)ᄒᆞ고, 단발(斷髮)ᄒᆞ고 손톱 베고 〔머리 깍단(깍는다는) 말〕
도통(道通)ᄒᆞ고 년노(年老)ᄒᆞ야 〔늙거단(늙었다는) 말〕, 잇ᄯᅡ(이땅)에셔 몰셰(沒世)로다 〔죽어단(죽었다는) 말〕
당ᄐᆡ종(唐太宗) ᄯᅢ 삼장ᄃᆡᄉᆞ(三藏大師, 玄奘) 〔넷날(옛날) 당(唐)나라 인군, 즁(중) 일홈〕, ᄃᆡ장경(大藏經)을 구(求)ᄒᆞ랴고 〔불경(佛經) 일홈〕
손오공(孫悟空) 거나리고(거느리고) 〔유명한 사람 일홈〕, 셔역국(西域國) 드러올졔(들어 올제)
쳔신만고(千辛萬苦) 삼년(三年)만에, 셔가셰존(釋迦世尊) 보와기로(보왔기로)
셔유긔(西遊記) 지어ᄂᆡ셔 〔착(冊) 일홈〕, 후셰(後世)에 젼(傳)ᄒᆞ더니
날날 이ᄂᆡ 몸에, 쳔은(天恩)이 융슝(隆崇)ᄒᆞ야 〔인군에 은혜〕
출강ᄉᆞ신(出疆使臣) 봉명(奉命)ᄒᆞ야, 셔녁국(西域國)을 지나가니
ᄇᆡ에 나려(내려) 마ᄎᆞ(馬車) 타고, 넷(옛) 졀을 ᄎᆞ져가셔
졀문 밧(밖) 다다르니, 즁(중) ᄒᆞ나 나와 맛네(맞네)
져 즁(중)에 거동(擧動) 보소, 몸에난 흑장삼(黑長衫)
머리난 북상투, 슈염(鬚髯)은 ᄒᆞᆫ자 넉넉
고두합장(叩頭合掌) 문안(問安)ᄒᆞ되 〔머리를 ᄭᅳ덕 ᄭᅳ덕〕, 사신(使臣) ᄒᆡᆼᄎᆞ(行次) 안녕(安寧)ᄒᆞ오
져 즁이 인도(引導)ᄒᆞ야, 졀 문(門)안 드러시니(들었으니)
탁ᄌᆞ(卓子) 우에 연화등(蓮花燈), 탁(卓子)뒤에 남무암미(南無阿彌)
ᄎᆞᄎᆞ로 구경ᄒᆞ고, 셰존(世尊) 보기 간청(懇請)ᄒᆞ니
이 즁(중)이 인도(引導)ᄒᆞ야, 후원(後苑)으로 드러가며
셕탑(石塔) ᄒᆞ날(하나를) 가르치되 〔돌탑〕, 셰존에 무덤이요 〔산소(山所)란 말〕
불당(佛堂)을 덜걱(덜컥) 열고, 벽상(壁上)을 지졈(指點)ᄒᆞ되 〔가르친단(가리킨다는) 말〕

착ᄒᆞ면 연화ᄃᆡ(蓮花臺)요, 악(惡)ᄒᆞ면 지옥(地獄)이라
션심(善心) 먹고 고졍(固定)ᄒᆞ면, 반닥거시(반드시) 복(福)이요
음난(淫亂)ᄒᆞ고 도셕(桃色)ᄒᆞ면, 져런 죄(罪)를 밧나니라(받느리라)
ᄉᆞ벽(四壁)에 붓친 그림, 일일(一一)히 강논(講論)하다
뎡젼(正殿)에 드러시니 〔ᄃᆡ궐(大闕)〕, ᄎᆡᄉᆡᆨ(彩色)이 영농(玲瓏)ᄒᆞᆫᄃᆡ
셰존(世尊)이 누언난ᄃᆡ(누었는데), 기리(길이)가 삼간(三間)이요
허리난 두 아람(아름), ᄉᆡ쎨(샛별) 갓튼(같은) 두 눈이라
신치(身體)가 늠늠(凜凜)ᄒᆞ야, 산(生) 사람과 일반(一般)이라
셰존(世尊)이 살어난가 쥭어난가(죽었는가), 져 즁(중)이 ᄃᆡ답(對答)ᄒᆞ되
셰존(世尊)은 ᄉᆡᆼ불(生佛)이라, ᄉᆡᆼ불(生佛)도 쥭단 말가
예라 이 즁(중) 네 몰낫다(몰랐다), 셰존(世尊)이 공덕(功德) 만어(많어)
쥭어도 산 모양(模樣), 사러시면(살았으면) 무덤인나 〔산소〕
져 즁이 합장(合掌)ᄒᆞ되, 무한(無限) 공덕(功德)이요
어화 셰상(世上) 사람더라(들아), 이런 구경 ᄒᆞ야심나

(제352행~제386행)[49]

C는 <서사록>의 7월 25일 내용의 일부이며 C′는 <셔유견문록>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두 내용 모두 작자가 콜롬보에 도착하여 들른 절에 대하여 서술한 부분이다. C는 총 18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반면 C′는 총 35행으로 이루어져있다. C′의 분량이 C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분량이 늘어난 만큼 해당 부분의 내용은 C보다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C에서는 절의 구조와 관찰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는 반면 C′에서는 서유기에 관한 이야기와 작자의 주관적 의견 및 감정이 서술되어 있다.

49) <셔유견문록> pp.181~182.

D

8월 20일(7. 17) 맑고 비

오후 3시에 우리 배는 인천항(仁川港)에 도착했다. 오후 7시에 기차를 타고 서울(京城)로 들어가 입궐해서 복명(復命)했다.[50]

D′

반갑도다 바갑도다, 인쳔(仁川) 졔물(濟物) 뵈넌(보이는)고나
한가(閑暇)ᄒᆞ다 져 빅구(白鷗)야, 회환사신(回還使臣) 반기난듯
츈몽(春夢)을 씨친듯시(깨친 듯이), 졍신(精神)이 쇄락(灑落)ᄒᆞ다
션창부두(船艙埠頭) 다다르니, 아들 족하(조카) 네 완나냐
가던 날이 어졔 갓고(같고), 오난 날이 금일(今日)일셰
긔ᄎᆞ(汽車) 타고 입경(入京)ᄒᆞ야, 복명후(復命後)에 근친(覲親)ᄒᆞ니
쳔덕(天德)일셰 쳔덕(天德)일셰, 황뎨폐하(皇帝陛下) 만셰ᄐᆡ평(萬歲泰平)
경ᄉᆞ(慶事)로다 경ᄉᆞ(慶事)로다, 부모임(父母任) 슈복강녕(壽福康寧)
쳐ᄌᆞ(妻子)가 무탈(無頉)ᄒᆞ니, 경ᄉᆞ로다 경ᄉᆞ(慶事)로다
셔양국(西洋國)이 좃타한덜(좋다한들), 고국산쳔(故國山川) 갓틀(같을)소냐
동방뎨국(東方帝國) 만쳔년(萬千年)에 〔우리나라〕, 일월(日月)이 명낭(明朗)ᄒᆞ다

(제412행~제422행)[51]

D와 D′는 각각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의 마지막 내용이다. D′에는 작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다소 개입되어 있다. D의 경우 2시에 인천항에 도착하였고, 오후 7시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복명하였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서술하고 있는 반면 D′의 경우 고국에 가까워진 작자의 흥분된

50) <서사록> p.167.
51) <셔유견문록> pp.182~183.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작자는 오랜만에 다시 보는 인천땅에 반갑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또한 작자는 지나가는 갈매기도 자신을 반기는 것 같은 상쾌하고 가뿐한 기분이며 반가운 마음이다. 작자가 고국에 돌아온 기쁨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고국에 돌아온 기쁨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안녕함을 확인하고 작자는 자신의 기쁜 심정을 '경ᄉᆞ로다 경ᄉᆞ(慶事)로다'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작자는 마지막으로 서양이 좋다한들 우리나라만 못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는다. 작자가 기행을 다녀와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 것이다.

몇몇 예문을 통하여 내용이 추가된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주 나타난 형태는 아니지만 작자는 자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관찰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내용을 덧붙였다. 대체적으로 내용이 추가된 경우는 <서사록>보다 <셔유견문록>에 비교적 작자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이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자의 주관적인 표현의 추가는 독자로 하여금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다 자세히 서양을 글로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기에 독자는 작자로 감정이입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서양의 문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또 작자가 한자어 또는 낯설거나 어려운 단어에 주석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당시 한자를 잘 모르거나 신문물이 낯설었던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3. 내용이 삭제된 경우

세 번째 형태는 <서사록>이 <셔유견문록>으로 재해석되면서 내용이 삭제된 경우이다. 내용이 삭제된 경우란 <서사록>에서 <셔유견문록>으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해당 일자의 내용 전체가 탈락된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내용이 요약된 경우에서도 용이 삭제된 부분은 있었지만 내용이 요약된 경우의 내용 삭제는 동일한 날에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 몇 가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서커스 구경 장면 중 <서사록> 첫 부분에 서술된 보석상점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었으며, <서사록>의 7월 14일 내용에서는 이집트 항에 정박하여 이집트 사람들의 외양이나 그들의 문화에 대하여 관찰한 내용과 함께 수에즈 운하를 관찰하고 서술하였는데, <셔유견문록>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는 이집트항에 정박한 내용과 수에즈 운하에 대한 설명과 느낌만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본 장에서는 동일한 날짜에 여러 일정 중 몇 가지를 삭제하는 것은 내용이 요약된 경우로 정의하며, 이와는 달리 특정 일자의 기록이 완전히 삭제된 경우는 내용이 삭제된 경우로 간주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A

4월 23일(3. 16) 흐림

4월 24일(3. 17) 비[52]

5월 17일(4. 10) 맑음[53]

52) <서사록> p.138.

5월 23일(4. 16) 흐리고 맑음[54]

6월 11일(5. 6) 흐림[55]

8월 13일(7. 10) 맑음

8월 15일(7. 12) 맑음[56]

A는 <셔유견문록>으로 해석되면서 완전히 삭제된 부분의 일부이다. 양력날짜/음력날짜/날씨만 기록되어 있으며 일기문의 특성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하지만 A는 해당 날짜에 일어난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 작자는 <서사록>을 서술할 당시 이러한 부분을 기록적인 측면에서 남겨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셔유견문록>이라는 문학작품으로 해석되는 과정 중 이렇게 기록적인 측면이 뚜렷한 날짜와 날씨는 독자에게 큰 의미가 없으며, 내용상 문맥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에 해당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즉 작자는 재해석 과정을 통해 문학장르 자체가 일기문에서 가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A는 작품에 불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한 것이다.

A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형태의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B

4월 18일(3. 11) 맑음

53) <서사록> p.141.
54) <서사록> p.143.
55) <서사록> p.147.
56) <서사록> pp.166~167.

오후 7시부터 비가 내렸다.[57]

5월 4일(3. 27) 맑음

계속 풍랑이 일어났다. 대양(大洋)의 수력(水力)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바람이 없어도 물결이 저절로 일어났다. 363리를 항행했다.[58]

5월 7일(3. 30) 맑음

풍랑은 조금 멎었으나 비가 오다가 바람이 불다 했다. 기후가 몹시 차가워졌다. 362리를 항행했다.[59]

5월 12일(4. 5) 맑음

바다 물빛이 먹물처럼 검푸렀게 보였다. 뱃길은 평온했다. 357리를 항행했다.[60]

8월 2일(6. 29) 맑음

한서표는 70도까지 올라갔다. 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리니 기분이 우울하다.

8월 3일(6. 30) 맑음

오후 9시에 율록도(栗綠島 ?)를 통과했다. 기후는 어제와 같다.

8월 4일(7. 1) 맑음

한서표에는 76도를 기록하고 있다.[61]

8월 6일(7. 3) 맑고 가는 비

오전 10시에 여객선은 동쪽을 향해 출항했다. 오후 8시에 폭우가 내리더니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다.

---

57) <서사록> p.137.
58) <서사록> p.139.
59) <서사록> pp.139~140.
60) <서사록> p.140.
61) <서사록> p.165.

8월 8일(7. 5) 맑음

큰 바람이 세차게 불지않는데도 배는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우리는 배의 요동에 견딜 수 없었다. 선원들이 말하기를 이곳 바다는 청국바다(중국해)로서 해로가 험해서 옛날부터 이와 같았다고 한다.[62]

B의 형태는 A의 형태와 비슷하지만 날짜/음력날짜/날씨+날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의 형태이다. 한마디로 A형태에서 날씨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진 형태인데, A와 마찬가지로 <셔유견문록>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내용상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내용에 가깝기 때문에 탈락되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A와 B 모두 <서사록>의 도입부와 마무리 부분에서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배를 타고 가는 동안 기록한 내용들로 이를 살펴보면 일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석 과정을 거치며 일기문에서 가사문학으로 옮기는 과정 중 내용상 삭제해도 무방하며, 이를 <셔유견문록>에 서술할 경우 불필요한 분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자는 오고 갈 때 기록한 간단한 <서사록>의 내용들은 <셔유견문록>에서 거의 삭제하였다.

다른 형태의 삭제 양상을 살펴보자.

62) <서사록> p.166.

C

6월 28일(5. 23) 맑음

일행 네 사람은 희마장(戱馬場)에 가서 말위에서 벌이는 격구(擊毬)놀이[63]를 관람했다. 말탄 사람은 용감했고 말은 건장해서 박수 갈채를 받았다.[64]

7월 16일(6. 12) 맑음

바다 물빛은 먹물 풀어놓은것 처럼 시커멓다. 이따금 이끼같은 찌꺼기(渣滓)가 떠도는데 색깔은 아주 누렇다. 어떤 사람은 바다안에 산호가 많아서 바다물빛이 이모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산위에서 흘러내려 왔기때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기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도 깊히 믿을 바 못된다.

7월 18일(6. 14) 맑음

온도계를 보니 94도이다. 연해(沿海)의 해로는 험난해서 해로마다 등대를 설치해놓고 밤이면 등대를 밝혀 선박의 운항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이곳 까지의 해로에는 등대가 서로 보일 정도로 잇달아 설치해 놓고 있다. 상어같은 큰 고기가 여객선 가까이에서 노닐고 있었다. 선원들이 이 바다고기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 고기를 잡아 먹지않기 때문에 많은 상어떼가 사람가까이로 모여 든다고 한다.[65]

7월 24일(6. 20) 맑음

오전 8시에 조그마한 섬을 통과했다. 섬에는 등대가 있고 수목이 울창해서 경치가 좋았다. 이곳 지명을 물어보니 맥도(麥島 ?)라고 했다.[66]

---

63) 말 위에서 공치기하는 폴로(Polo) 경기이다.
64) <서사록> p.156.
65) <서사록> p.162.
66) <서사록> p.163.

C는 작자가 보거나 겪은 일상적인 내용들이다. 배에서 경험하거나 영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 체험하고 관찰한 것을 짧게 서술한 부분들인데,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 또한 <셔유견문록>으로 옮겨지는 동시에 삭제된 부분들이다. 작자가 직접 체험하고 관찰하면서 별 감흥이 없었기에 짧게 서술된 면도 있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서사록>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셔유견문록>으로 옮겨서 해석할 당시 내용에 중요도가 낮은 내용이라 생각하였기에 자동 삭제된 형태이다.

작자는 영국에 오고 갈 때 들른 지역에 관해 기록한 내용도 <셔유견문록>에서는 탈락시키고 있다.

D

5월 18일(4. 11) 흐림

오후 2시에 위니펙(위이, Winnipeg)정거장에 도착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한가하게 거리를 거닐었다. 집들은 부유하고 물산이 풍족하여 밴쿠버와 견줄만 했다. 밴쿠버항으로부터 거리는 1826리이다.[67]

E

5월 22일(4. 15) 맑음

오전 8시에 몬트리올(원토리, Montreal) 정거장에 도착해서 철로회사 여관에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했다. 우리 네 사람은 마차를 타고 시가지를 유람했는데, 이곳 인구는 30만이라 한다. 이날 밤에 연극장(戱臺)에서 연극을 관람

67) <서사록> p.141.

했다.[68]

F

7월 29일(6. 25) 맑음

아침 일찍 갑판에 올라가보니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푸른 바다 물결이 우유빛깔처럼 보였다. 남쪽을 바라보니 주먹만한 산봉오리가 우뚝 솟아 있어서 상쾌한 기분이 몰려 온다. 뱃사람들이 이 산봉오리를 가리켜 인도네시아(Indonesia) 수마트라(Sumatra) 섬(荷蘭島, 네덜란드領)[69]라 했다. 한서표는 어제와 같다.[70]

위의 D, E, F는 작자가 영국으로 오고 갈 때 <서사록>에는 기록된 내용이지만 <셔유견문록>에서는 삭제된 내용들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D는 위니펙에 도착하였다는 내용, E는 몬트리올에 도착하여 연극을 관람한 내용, F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을 지나는 내용이다. 이들 내용은 작품 전개상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다. 또한 작자가 딱히 중요한 일정이 있던 부분이 아니기에 작자는 여정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앞뒤 내용간의 유기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였다.

다른 형태의 내용이 삭제된 경우로는 공무수행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경우이다. 작자는 개인적 차원의 여행이 아닌 왕명(王命)을 받아 공적(公的)인 신분으로 영국기행을 떠난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내용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이 공무수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 하지

68) <서사록> p.143.
69) 바타비아(Batavia)는 옛 네덜란드(和蘭)령 인도네시아의 자바 섬에 있다. 현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Jakarta)이다. 화란은 이곳에 동인도회사를 두어 동양진출의 거점으로 이용했다.
70) <서사록> p.164.

만 이는 <서사록>에서 빈번히 나타나지만 이에 비해 <셔유견문록>에는 공무수행에 관한 내용이 보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확인해보자.

G

1902년 3월 22(음 2월 13일)

특명 부영대사 수원(隨員)

정삼품(正三品) 이종응(李鍾應)[71]

예식원(禮式院) 번역과장(繙繹課長)[72] 고희경(高羲敬)

참리관(參理官)[73] 김조현(金祚鉉)[74] [75]

G는 <서사록>의 초반부이다. 간략하게 해당 날짜에 사행을 떠나기 전 작자가 어떤 벼슬에 위치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영국에 가는지에 대해 기록하였다. 작자는 벼슬/이름의 순서로 기록하였으며, 이는 공무수행을 위해 함께 서양으로 떠나는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셔유견문록>에서는 이렇게 함께 떠나는 인물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다

71) 『뮈텔주교일기』 Ⅲ(1901-1905)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p. 166(1902. 8. 18).
그당시 실록이나 외교문서에는 특명부영대사 '李載覺'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뿐, 영국 대관식 예식 사절단을 안내하는 외교고문 고페(H. Goffe, 葛福)를 비롯하여 수행원 3명의 명단을 찾아볼 수 없다. 『뮈텔주교일기』에 수원 '李鍾應'의 이름이 처음 보인다.

72) 궁내부(宮內府)소속으로 외국과의 왕복문서를 번역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아.

73) 구한국 때 궁내부 예식원의 한 벼슬. 외국어 통역 및 번역을 맡았음.

74) 『閔忠正公遺稿』(국사편위, 1958), pp. 143-144 ; Horace N. Allen, *Korea : Fact And Fancy, Being A Republication Of Two Books Entitled "Korean Tales" And "Chronological Index"*(Seoul :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4), p. 199(March 24, 1897) ; 김원모, 근대한국외교사 연표(단국대 출판부, 1984), p. 157(1897. 3. 24). 1897(건양 2)년 3월 24일 駐箚歐洲 特命全權公使 閔泳煥이 빅토리아 여왕즉위 60주년 축하식에 경축사절로 파견되었을때 金祚鉉은 '外部繙譯官補'로 수행했다.

75) <서사록> p.134.

만 제6행 '황데조칙(皇帝詔勅) 나리우ㅅ, 부영듸ㅅ(赴英大使) 츌강시(出疆時)에 〔영국 가넌(가는) 사신'에서 '영국에 가는 사신'이라는 뜻의 '부영대사(赴英大使)'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포괄적으로 자신과 함께 여정을 떠나는 일행을 표현하고 있다.

H

6월 25일(5. 20) 맑음

섬라(暹羅:泰國)태자와 벨기에·독일(德國)친왕이 거처하는 여관에 명함을 보냈다. 영국 궁내대신이 칙서를 받들어 부관을 보내어 경의를 표하면서, "때마침 신병이 있어서 대관예식을 치를 수 없지만 예식관의 접대 범절은 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원컨대 편안하게 기거하시고 빨리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76]

H′

6월 29일(5. 24) 맑음

전보 칙서를 받았다. 만약 각국 경축사절이 출발한다면 오는 1일에 출발해도 좋다고 했다.[77]

H는 영국 황제의 병환으로 대관 예식이 점점 미뤄지자 영국의 대신이 칙서를 보낸 내용이다. 그 내용은 대관예식을 치룰 수 없게 되었지만 편히 있다가 귀국하라는 내용이다. 본래 작자의 영국 사행 목적은 대관예식에 참석하는 것인데, 대관예식이 결국 황제의 병환으로 무기한으로 연기

76) <서사록> p.154.
77) <서사록> p.156.

되어 임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자 각국의 사신들이 떠날 채비를 하기에 작자는 급히 귀국해도 좋은지에 관한 전보를 조선으로 보냈다. H′에는 조선에서 회신된 전보의 내용을 담았다. 내용은 귀국해도 좋다는 내용인데 이는 작자가 왕명(王命)을 받들어 영국에 방문한 것과 연관 지어 공무수행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공무수행을 서술한 부분은 많지만 간략히 살펴본다면 이 세 부분정도일 것이다.

작자가 공무수행을 서술한 일부분을 탈락시킨 의도는 무엇일까. 그 의도 중 하나는 작자의 서술 목적에 있다. <서사록>의 경우 작자가 일기형식으로 사행을 기록하기 위해 남긴 작품이지만 <셔유견문록>의 경우 독자에게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일반적인 독자라면 <서사록>에 나와 있는 공무수행의 내용에 대해 별다른 관심은 갖지 않을 것이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공무를 수행하는 내용보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서구의 새로운 문화, 말로만 듣던 서구의 문물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에 작자는 이러한 독자들을 고려하여 업무에 관한 내용은 해석과정에서 탈락시킨 것이다.

4. 내용이 요약된 경우

네 번째 형태는<서사록>에서 <셔유견문록>으로 재창작되면서 내용이 요약된 경우이다. 대표적인 요약부분을 살펴보자.

A

5월 21일(4. 14) 흐림

오전 7시에 우리 네사람은 마차를 타고 캐나다(美國界)의 장관인 나이애가라(馬蹄) 폭포로 갔다. 이곳은 바로 영국과 미국 두 나라의 경계지대로서 땅은 미국땅이지만 앞서 기술한 3대호수로부터 흘러 내려오다가 합류해서 이 폭포로 쏟아진다는 것이다. 물길의 원천지는 천여리이고 수세는 호대(浩大)하다. 이곳 물길은 좁고 양쪽 언덕 석벽의 넓이는 수십간에 지나지아니하고 지형의 생김새가 말발굽 모양같다해서 폭포이름을 '마제(馬蹄)'라 일컫고 있다. 석벽이 홀연히 깍아지른듯 가파른 절벽이 백여장(丈) 서 있었으니, 물길이 절벽에 걸린듯이 쏟아져 내려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하다. 물길의 기세가 서로 격돌해서 물빛은 혹은 푸르게 혹은 붉게 빛을 발해서 수백개의 무지개가 걸린 듯하다. 폭포 아래 푸른 강물위에는 흰 눈 같은 물보라가 공중에 가득하니 실로 천하 장관이다. 강위에는 4-5개의 철교가 완연하게 걸쳐있는데 마치 긴 무지개가 물을 마시는 듯하다. 강 양쪽 언덕을 따라 철로가 있고 전차가 왕래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윤선을 타고 강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강 양쪽 도로에는 마차 행렬이 줄을 잇고 있어서 하루 유람객수가 수천명이 될 것같다. 강 남쪽 언덕에는 수십층 높은 누각(樓閣)이 서 있었다.

우리 네사람은 이 높은 누각에 올라 난간에 의지하여 내려다보니 공중에 흐릿한 기운(風烟)이 눈에 가득차서 잠시나마 하늘끝 만리 타국에 유람하는 고통을 잊게 했다. 이윽고 누각 주인이 상하 우의(雨具) 네벌을 가지고 와서 입으라 한다. 우리는 그 뜻을 알지못하고 받아서 입었다. 주인이 앞장 서서 우리를 안내하여 강 언덕에 이르니 한칸 철옥(鐵屋)이 있었다. 주인이 우리 일행에게 들어가기를 청하기에 들어갔더니 철옥안에서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고 철옥은 지하로 수십길(丈)을 내려가더니 멈쳐 섰다.[78]

주인이 먼저 나가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청하기에 나가보니 칠흑같은 동굴이었다. 우리는 지하 동굴가운데로 백여보 따라가다가 햇빛이 들어오는 곳을 바라보니 갑자기 머리위에서 수만개의 천둥치는 굉음이 울리고 눈보라 같은

78) 여기서 鐵屋이란 곧 엘리베이터를 가리키고 있다.

물보라가 어지러히 흩어져 사람의 이목을 깜짝 놀라게 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니 우리는 저 폭포수 석벽 아래에 서 있었다. 겁이 나서 우리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곧 발길을 돌려 밖으로 나와 서로 마주보니 진흙탕에서 싸우던 짐승처럼 보였다. 대개 주인이 안내하던 길은 바로 폭포수 남쪽 언덕에서 굴을 파서 터널길을 만들어 폭포수로 통하게 한것이다. 이에 우리는 의관을 정제하고 강을 따라 수십보를 내려가니 사진관이 있었다. 우리네 사람은 폭포수를 배경으로 앉아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돌아와서 기차를 타고 퀘벡항으로 돌아 왔다. [영국 사행(使行)에서 돌아와서 복명(復命)한후 이 기록은 국사(國史)에 기입하게 되었다][79]

A′

이곳슨(이곳은) 어듸ᄆᆡ(어디메)요, 미국(美國) 영국(英國) 분계(分界)로다 〔두 나라 경계란 말〕

디명(地名)은 커ᄂᆡᄃᆡ(캐나다)요 〔쌍일홈〕, 폭포(瀑布) 유명(有名) 마졔포(馬蹄布)라 〔폭포슈 일홈〕

쳔하(天下) 졔일(第一) 마졔포(나이애가라 瀑布)을, 금일(今日) 장관(壯觀) ᄒᆞ리로다

호호탕탕(浩浩蕩蕩) 오난 물이, 쳔이(千里) 횡원긔셰(橫原氣勢)로다

평지졀벽(平地絶壁) 써러져서, 단안(斷岸)이 ᄇᆡᆨ쳑(百尺)이라 〔써러진 언덕〕

ᄐᆡ산(泰山) 갓튼(같은) 져 물결니(물결이), 바로 나리 쏫치(솟치)도다

푸르고 불근(붉은) 광ᄎᆡ(光彩), 무지ᄀᆡ가 걸인드시(걸린듯이)

뇌졍(雷霆) 번ᄀᆡ 만쳔상(滿天狀)은, 비셜(飛雪)이 만공(滿空)이라 〔눈〕

하류(下流) 쳥강(淸江) 무한경(無限景)은 〔그 아ᄅᆡ가 강물〕, 이거시(이것이) 폭포슈(瀑布水)라

이런 구경 다 ᄒᆞᄌᆞ면, 몃날 될지 모르도다

(제82행~제91행)[80]

79) <서사록> pp.142~143.
80) <셔유견문록> pp.171~172.

A는 <서사록>의 5월 21일 내용을 발췌한 부분이고 A′는 <셔유견문록>의 82행부터 94행까지를 옮겨온 것이다. 두 부분 모두 작자가 영국에 도착하기 전 들른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하여 관찰한 내용을 서술한 부분이다. A가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A′는 비교적 짤막한 행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눈에 들어온다. 또한 A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하여 서술한 부분이 총 23개의 긴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는 반면 A′는 A의 절반정도인 10행으로 서술되어 있다. A에서 A′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요약된 것이다. A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가기 위한 과정 및 보는 순간, 보고 나서 한 일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상세히 서술한 반면 A′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가는 과정 및 구경하고 난 뒤 한 일 등 내용상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나이아가라 폭포의 모습을 비유법을 통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B

6월 10일(5. 5) 흐림

우리 네 사람이 큰 거리로 나갔다. 어떤 보석상점(寶貝店)에 갔더니 금옥과 보석이 말과 되로 될 정도로 많고, 패물과 장난감 노리개(琓器) 수공예품 등 장신구들은 하도 기묘해서 귀신이 아니고서야 글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무릇 이와같은 상점이 80여곳이라고 한다.

오후 7시에 서커스장(觀戱臺)에 갔다. 누각은 굉장히 컸으며 5층이었다. 난간은 둥글기가 반달(半月)이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것과 같다. 금빛과 푸른 빛이며 붉고 파란 빛이 휘황찬란해서 사람의 안목을 아찔하게 했다. 수 천의 관람객들은 난간 안쪽에 단란하게 앉아 있었다. 앞에는 무대(技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음악이 번갈아 울려나오는데 웅장하고도 호방하면서도 맑고 밝

았다. 수십명의 미녀들이 금은 보석으로 장식하고 쌍쌍이 나와 온갖 묘기를 보인다. 잠깐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물러가는가 하면, 혹은 몸을 폈다 굽혔다 하며 모여도 어지럽지 아니하고 흩어져도 산만하지 않아 무척 조리(條理)가 있었다. 노래 소리는 간드러져서 마치 천만가지 실버들 위에서 뭇 앵무새가 다투어 노래하는 것같다. 춤추는 소매는 사뿐사뿐 봄바람에 복숭아와 오얏꽃 위에 나비들이 하늘하늘 어지러이 날아 다니는 것과 같다. 찬란한 은빛은 검광(劒光)이 번뜩이듯 했는데 마치 배꽃이 바람에 나부끼며 떨어지는 것같다. 쇠소리가 짤랑짤랑 울리더니 이윽고 한 무리의 낭자군(娘子軍)이 무대에 등장했다. 앞뒤로 진퇴하는 군용(軍容)은 질서정연하니 이는 곧 적을 무찔러 이긴 기쁨을 같이 나누기위한 것이었다.

얼마 후에 건장한 사내 대여섯명이 나와 마주보고 서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몸을 날려 상대편 사람의 어깨 위로 뛰어 올라 갔다. 또 한 사람이 나와 두세번 왔다 갔다 하더니 불현듯 몸을 날려 뛰어 올랐던 사람의 어깨 위로 올라 섰다. 또다시 12,3세 가량 되어보이는 작은 아이가 나오더니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문득 몸을 날려 맨 꼭대기에 선 사람의 어깨 위로 뛰어 올라 섰다. 앞뒤로 뛰어 오르는 모습이 나는 새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같아서 정말 볼 만했다.

갑자기 무대가 바뀌면서 우뢰같은 바다 소리가 장내에 가득 차고 망망한 창파 위에는 윤선들이 좌우로 오가기도 하고, 혹은 평원 광야, 깊은 산과 긴 골짝을 기차가 번개같이 달리는 것같다. 혹은 경마장에서 여러 말들이 앞을 다투어 달리는 듯하여 그곳에서 관람객들이 실지로 활동하는것 같으니, 이는 활동사진의 조화로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것이라 한다. 혹은 원숭이가 사람의 지시에 따라 묘기를 부리고 앵무새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한다. 금수를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것이 지극한 이치가 아니라면 이와같은 묘기연출은 불가능하리라.

마지막으로 영국 황제의 사진이 화면 위로 엄숙하게 나타나자 관람객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서 공경스럽게 예를 표하고 자리를 떴다. 이것은 아마 영국 군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81]

---

81) <서사록> p.146.

B′

오날 져녁 심심ᄒᆞ니, 희ᄃᆡ(戱臺) 구경 ᄒᆞᆫ번 ᄒᆞ셰 〔노ᄅᆡᄒᆞ고 츔 츄난 것〕

ᄎᆡ루화각(彩樓畫閣) 조요즁(照耀中)에, 산악(山岳) 갓튼 풍악(風樂)이라

졀ᄃᆡ미인(絶對美人) 슈십인(數十人)니, 응장셩식(凝粧盛飾) 긔이(奇異)ᄒᆞ다

쌍쌍ᄃᆡ립(雙雙對立) 거동(擧動) 보소, 노ᄅᆡᄒᆞ며 츔을 츈다

쳔만(千萬絲) 녹양상(綠楊上)에, 쐭고리가 우난다시(우는 듯이)

도리화(桃李花) 츈풍즁(春風中)에, 편편(翩翩) 호졉(胡蝶) 노난듯시(노는 듯이)〔납븨〕

압시금 ᄃᆡ군두난(서커스 묘기) 〔ᄌᆡ쥬〕, ᄌᆡ인(才人) 광ᄃᆡ(廣大) 신통(神通)ᄒᆞ다

(제169행~제175행)[82]

B는 <서사록>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B′는 <셔유견문록>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B와 B′의 분량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재해석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내용이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B보다 간략해진 이유는 우선 B′에는 B에 나타난 보석상점에 관한 이야기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자가 서커스 구경을 가기 전 들른 보석상점에서 본 기묘하고 아름다운 금옥과 보석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이는 B′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B에서 자세히 묘사된 서커스 장면을 B′에서는 비교적 간단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B에서는 서커스에 대하여 묘사한 문

82) <셔유견문록> p.174.

장이 22개로 6월 10일의 문장 전체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자세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반면 B′에서는 작자가 구경한 보석상점에 대한 내용은 빠졌을 뿐더러 서커스 구경에 관한 내용도 단 7개의 문장으로 내용을 요약하였다.

B′의 서커스 부분을 살펴보면 '치루화각(彩樓畫閣) / 조요즁(照耀中)에, / 산악(山岳) 갓튼 / 풍악(風樂)이라'와 '졀ᄃᆡ미인(絶對美人) / 슈십인(數十人)니, / 응장셩식(凝粧盛飾) / 긔이(奇異)ᄒᆞ다', '쌍쌍ᄃᆡ립(雙雙對立) / 거동(擧動) 보소, / 노ᄅᆡᄒᆞ며 / 츔을 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4·4조 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가사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악(山岳) 갓튼 풍악(風樂)이라'와 '쐭고리가 우난다시', '편편(翩翩) 호졉(胡蝶) 노난듯시'와 같은 직유법이 사용되어 독자로 하여금 작자가 구경한 서커스가 마치 독자 눈앞에도 펼쳐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다른 부분을 살펴보자.

C

6월 19일(5. 14) 흐림

영국 예식원(禮式院)으로부터 미리 청첩이 왔다. 대관식 때 앉는 좌석이 「제팔좌(第八座)」로 정해졌다고 했다. 영국 육군 대도독 로버쓰와 외부협판 크본이 내방했는데 우리가 마침 외출중이어서 만나지 못했다. 모두 명함을 남겨두고 갔다.

오후 7시에 우리 일행 네 사람은 기차를 타고 수정궁(水晶宮)에 가서 불꽃

놀이(火戱)를 구경했다. 수정궁 둘레가 3천만 평방미터라고 한다. 내외 상하의 전등 불빛은 하늘에 가득찬 별이 반짝이는 것과 같았다. 건물뒤에 큰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흰 돌에 괴이한 무늬를 새긴 돌난간이 연못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연못 가운데에는 괴석으로 산을 만들어 화초를 가득 심어 놓고 있다. 조그만 배가 있어 남녀가 다투어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고 있었다.

수정궁 관리소장과 인접관(引接官)의 인도를 받아 조그마한 누각에 이르렀다. 이 누각은 8,9명은 수용할만 하고 바닥에는 홍자색(紅紫色) 비단을 깔아 놓았다. 이곳은 영국 황제가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곳이라 한다. 이 누각 아래가 바로 불꽃놀이 장소이다. 장내에 가득찬 전등은 불숲(火林)을 이루고 있었다.

구경꾼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윽고 군악 연주가 끝나자 갑자기 화포(火砲) 터지는 소리가 몇차례 들리더니 불화살(火箭)이 평지로부터 수많은 나뭇배(林船)모양으로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공중에서 포성이 어지럽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불화살이 갈라지고 흩어지며 내려오니 하늘에서 오색 불비(火雨)가 내리는 것같고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하다. 이와같은 불꽃놀이가 반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이 누각앞 좌우에는 10여길이나 되는 쇠시렁(鐵架)이 있고, 쇠시렁에는 큰 철바퀴(鐵輪)가 달려 있었는데, 바퀴안에는 무수한 작은 바퀴가 들어 있었다. 주렁주렁 달린 것이 마치 거위 알과도 같았다. 거위 알 같은 화등(火燈)은 구슬을 던져 두고 콩을 흩뿌려 놓은 것같다. 흔들거리면서 번쩍번쩍 빛나다가 조금 있으려니 '탁탁(坼坼)'하는 소리가 들렸다. 천만개의 화등이 갈라지고 쪼개지며 화광이 작열하면서 폭발하는 것이 분수기(噴水器)에서 물을 뿜어내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이 그치자 화륜(火輪)은 갑자기 변하여 한마리 큰 코끼리로 화하지 않는가. 긴 코와 늘어뜨린 귀로 어슬렁어슬렁 움직이는 것이 살아 있는 짐승과 똑 같았다. 또 한차례 포성이 울리더니 평지로부터 불화살이 어지러이 날아 오르고 오른쪽 쇠시렁의 큰 바퀴(大輪)위에서 한송이 모란이 피어났다. 잎은 푸르고 꽃은 붉은데 나비가 날며 꽃을 희롱하고 있다. 또 그 앞에는 높이가 10여장이나 되는 수백칸의 큰 쇠시렁이 있었다.

갑자기 포성이 울리자 그 쇠시렁 위에 일제히 불이 켜지면서 두 화인(火人)이 산악같이 우뚝 섰다. 자세히 보니 바로 영국의 황제와 황후였다. 잠시도 쉴새 없이 화포가 터지고 수백칸 쇠시렁위에서 '一'자형의 긴 불이 터져나왔다. 그 불기운(火勢)은 천길 절벽위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듯 내리 쏟아졌는데, 반쪽은 흰빛 폭포요 반쪽은 누런빛 폭포였다. 폭포수 소리가 세차게 일어나고 눈발이 공중에 가득하게 날리니 귀신의 글재주로도 이 모양을 방불하게 표현할 수 없으리라.

한 시간동안 이와같은 상황이 계속되다가 그쳤다. 또한 쇠시렁앞 평지위에 화차(火車) 두대가 있는데 쌍불(雙火)을 싣고 마차위에 화인이 앉아 있었다. 화차 두대가 앞을 다투어 달리다가 한대는 나는듯이 질주하고 다른 한대는 기계가 불리해서 점점 처지기 시작했다. 뒤처진 화차위의 화인이 내리더니 기계를 수리하는 동작을 하는(變通) 사이 앞 화차는 이미 약속된 결승점(信地)에 도착하자 화인이 수레 위에서 뛰어내려 춤을 추고 있었다. 이는 화차 승부경기라고 한다.

이윽고 평지를 바라보니 화포 터지는 소리가 나고 불화살이 공중에 가득찼다. 상하로 터지는 대포소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듯 울려 두 귀가 멍멍했다. 수 많은 구경꾼들은 대포 소리에 압도되어 허수아비(塑人)처럼 멍하니 서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불꽃놀이를 끝낸다는 음악 소리가 울렸다. 오늘밤 불꽃놀이에 든 경비를 물어보니 백여만여원이라고 했다. 경비는 사회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충족하며 오늘밤의 입장권 판매 수입은 불꽃놀이 경비의 거의 10배나 된다고 한다.[83)]

C′

슈졍궁(水晶宮) 다다르니, 특별상좌(特別上座) 안져보니 〔제일 상좌〕

유리집 쳔만간(千萬間)에, 누(樓)아릐가 화장(火場)일셰

일셩포양(一聲砲響) 나는 곳에, 승긔젼(神機箭)이 올나(올라) 간다〔살 갓치(같이) 올나 가넌(가는) 불〕

산악(山岳)을 흔드난듯(흔드는 듯), 강하(江河)가 끌넌듯시(끓는듯이)

83) <서사록> pp.151~152.

예셔도 탕탕 졔셔도 탕탕 그져 탕 또 탕탕, 안식(安息)ᄒᆞ다가
청쳔(靑天) 반공즁(半空中)에 오ᄉᆡᆨ(五色)비가 나리난듯, 또 씩식 탕탕
이 쳔지(天地)가 모도 다 불쳔지(天地)라, 연념(煙焰)이 창쳔(蒼天)
혹(或) 목단화상(牧丹花上)에 호졉(胡蝶)이 왕ᄂᆡ(往來)ᄒᆞ며, 풍악(風樂)이 진동(振動)
혹(或) 쳔장졀벽(千丈絶壁)에 폭포슈(瀑布水), 나리 쏫치난(솟치는) 모양(模樣)도 되고
최말(最末)의난(에는) 영황(英皇) 영후(英后), 완연(宛然)히 안진(앉은) 모양(模樣)도 되니
신긔(神奇)도 하고 이상(異常)도 ᄒᆞ거이와, 그져 두 눈 캉캄 귀가 먹먹
쳐음 보지 쳐음 보지, 불노리론 쳐음 보ᄂᆡ

(제255행~제267행)[84]

C는 <서사록>에서 발췌한 부분이며, C′는 <셔유견문록>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C와 C′ 모두 작품의 중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불꽃놀이 부분이다. 작자가 일행과 함께 수정궁에 가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장면을 서술한 내용인데, 이 부분 또한 A, A`, B, B`와 마찬가지로 C에서 C′로 해석되는 과정 중 많은 내용이 정리되었음이 한눈에 보인다.

동일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C는 총 43개의 문장 중 39개의 문장, 즉 6월 19일 내용의 90% 이상이 불꽃놀이에 대해 서술한 반면 C에서 작자는 단 12행으로 불꽃놀이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C와 C′의 분량 차이가 생긴 이유는 우선 C에서 C′로 해석되며 내용이 삭제된 점을 들 수 있다. C′가 수정궁, 즉 불꽃놀이를 구경할 장소에 다다른다는 내용으로 시

84) <셔유견문록> pp.177~178.

작하는 반면 C의 첫 번째 문장부터 네 번째 문장까지는 작자의 공무(公務)에 관한 내용이다. <서사록>이 개인적 차원의 일기라면 <셔유견문록>은 독자를 고려하여 해석된 작품이기 때문에 작자가 생각했을 때 작자의 공무수행에 관한 내용이 독자에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해석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C′에서는 작자의 주관적 감정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C는 이와 반대로 작자가 구경한 불꽃놀이에 대하여 보여주기 방식으로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작자는 <셔유견문록>의 다른 부분과 같이 C′에서도 '산악(山岳)을 흔드난듯(흔드는 듯), 강하(江河)가 끌넌듯시'와 '청쳔(靑天) 반공즁(半空中)에 오식(五色)비가 나리난듯'과 같은 비유법을 사용하고, '예셔도 탕탕 졔셔도 탕탕 그져 탕 또 탕탕, 안식(安息)ᄒᆞ다가', '쳐음 보지 쳐음 보지, 불노리론 쳐음 보ᄂᆡ'와 같은 반복법을 사용하는 등 많은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셔유견문록>의 전반적 특징인 4·4조의 형식이 파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에서 작자가 형식을 파괴한 것은 작자의 의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작자가 자신이 보고 느낀 화려한 불꽃놀이를 형식을 파괴함으로써 독자에게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내용이 요약된 형태의 대표적인 두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요약되었으며, <서사록>의 말미 부분에서 작자가 피낭에 도착하였거나 싱가폴, 홍콩, 부산, 목포 등에 도착한 여정을 기록한 부분은 <셔유견문록>으로 해석되면서 간략하게 서술되었다.

본 장에서는 <서사록>에서 <셔유견문록>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나타

난 내용 변화 양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가장 자주 나타난 형태는 내용이 정리된 경우와 내용이 삭제된 경우였으며 몇몇 부분에서는 내용이 추가된 경우도 나타났다. 하지만 순서가 바뀐 경우는 단 두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사록>에서 <셔유견문록>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작자는 내용을 여러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서사록>의 내용을 시간 순서 배치를 서로 바꾸어 작품 구조를 탄탄하게 하고, <서사록>에서 기록된 점 보다 작자가 독자에게 더 보여주고 싶은 부분에서 작자는 추가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또한 <서사록>의 내용이 긴 경우 작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기 쉽게 서술하였다. 내용이 삭제된 형태의 경우 여정 중에 기록된 날짜, 날씨 등 간략하게 서술된 내용을 탈락시키고, 내용상 불필요한 부분이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도 탈락시켜 내용의 유기적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함으로써 독자에게 흥미를 더했다. 작자가 이러한 여러 양상의 변화를 통해 내용을 견고화 시키면서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의 내용을 달리한 가장 큰 이유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이 중 가장 자주 나타난 양상은 내용요약 및 탈락양상이다. 한문으로 된 장문의 <서사록>을 한글인 <셔유견문록>으로 해석하면서 길게 서술된 내용들은 요약되었으며, 불필요한 내용이 탈락되었다. 특히 <서사록>에서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작자의 공무 수행에 관련된 부분이나 일상적인 내용들은 독자의 흥미를 위해 탈락되었다. 반면 작자는 독자를 고려하여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서양의 문물에 대하여는 많은 수사법을 이용하여 비교적 소상히 표현하고 있다.

본 장에서 연구한 여러 형태 변화를 통하여 작자는 독자에게 흥미를 주

고 이해를 도운 것이다. 또한 <서사록>에서 <셔유견문록>으로 해석되면서 4·4조 기법 및 민요 차용, 한자어 및 신문물에 대한 설명 추가 등을 통하여 독자에게 작품의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표현방법도 일반 문어체나 평어체가 아니라 가사체를 사용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독자의 흥미를 끌기에는 충분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사체인데, 이는 당시 작자가 서민 문화에 거부감이 없이 친숙했음을 알 수 있다.[85] 조선후기에 거의 수필에 가까운 장편 기행가사가 등장하게 되고, 가사와 민요가 결합하여 잡가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될 정도로 서민 문화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당시 작자도 이러한 서민문화의 영향으로 <셔유견문록>을 한글 가사체로 재창작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서양 문화가 낯설었던 독자들에게 이러한 내용 변화 및 형식의 변화를 통하여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85) 양반층을 중심으로 한 조선 전기의 가사가 정격가사가 주를 이룬다면,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의 가사는 변격가사의 형식이다. 변격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4·4조의 음수율을 유지하고 낙구에 음수율을 제한받지 않는 형태를 의미한다. <셔유견문록>의 작품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상당부분이 4·4조 형식이며, 낙구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형태로 보아 조선후기 서민층의 변격가사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Ⅳ. 사행가사로서의 <셔유견문록>의 특징

1. 서술상 특징

1) aaba식 구성

<셔유견문록>은 한글로 쓰여진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기행가사라는 점에서 이전 시대의 사행가사들과 구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한글로 쓰여졌다는 점과 함께 <셔유견문록>은 이전의 가사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닮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aaba식 구성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A

나넌 가네 나넌 가네, 쳔ᄋᆡ만니(天涯萬里) 영국(英國) 가네 (제30행)[86]

조화(造化)로다 조화(造化)로다, 화륜션(火輪船) 조화(造化)로다 (제38행)

이상(異常)ᄒᆞ다 이상(異常)ᄒᆞ다, 셔양(西洋) 풍속(風俗) 이상(異常)ᄒᆞ다 (제81행)[87]

영화(榮華)로다 영화(榮華)로다, 봉명사신(奉命使臣) 영화(榮華)로다 (제237행)[88]

86) <셔유견문록> p.170.
87) <셔유견문록> p.171.

쳐음 보지 쳐음 보지, 불노리론 쳐음 보ᄂᆡ (제266행)[89]

가자 가자 어셔 가자, 하로(하루) 쳔니(千里) 가는구나 (제298행)[90]

흑귀ᄌᆞ(黑鬼子) 흑귀ᄌᆞ(黑鬼子), 이거시(이것이) 흑귀ᄌᆞ(黑鬼子)라 (제319행)[91]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난ᄃᆡ 업난(없는) 바람이 분다 (제331행)

건너구나 건너구나, 약슈(弱水)물 건너구나 (제340행)

귀신(鬼神)일셰 귀신(鬼神)일셰, 셔양(西洋) ᄉᆞ람 귀신(鬼神)일셰 (제341행)

B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뎁데까?

C

살어리 살어리랏다. /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88) <셔유견문록> p.177.
89) <셔유견문록> p.178.
90) <셔유견문록> p.179.
91) <셔유견문록> p.180.

A는 <셔유견문록>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aaba식 구조이다. B는 '시집살이노래'라는 민요의 일부분이며, C는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의 일부분이다. A와 B, C는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동일한 분위기의 느낌을 받는다. 그 이유는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A와 B, C 모두 aaba식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구문의 반복을 통하여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안정되고 균형 잡힌 리듬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aaba식 구조는 서민가사에 자주 사용되던 방법이기에 한자보다 한글이 더 익숙한 서민층의 독자에게 친근한 느낌을 준다. 작품 속에는 인용한 부분 이외에도 여러 부분이 aaba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셔유견문록>이 당시 서민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92]

2) 4·4조의 율격

<셔유견문록>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작품 전반적으로 4·4조의 율격을 지키고 있는 점이다.

D

나넌 가네 나넌 가네, 쳔ᄋᆡ만니(天涯萬里) 영국(英國) 가네 (제30행)[93]

이리 츌넝 져리 츌넝, ᄇᆡ사람이 졍신(精神) 일네(잃네) (제56행)[94]

어셔 가ᄌᆞ 어셔 가ᄌᆞ, 긔ᄎᆞ운동(汽車運動) 밧ᄇᆡ(바삐)ᄒᆞ셰 (제92행)[95]

92) 김기영, 앞의 논문, pp.134~135.
93) <셔유견문록> p.170.
94) <셔유견문록> p.171.
95) <셔유견문록> p.172.

집치러(집치레)를 볼작시면, 층누고각(層樓高閣) 운즁긔(雲中起)라 (제140행)[96]

비단 도빅(塗褙) 황홀(恍惚)ᄒᆞᆫᄃᆡ, ᄉᆞ이 ᄉᆞ이 도금(塗金)이요 (제202행)[97]

도러(돌아) 와셔 안흘(安歇)ᄒᆞ고, 조찬후(朝餐後)에 안져(앉았)더니 (제267행)[98]

평원광야(平原廣野) 삼빅니(三百里)을, 물길 쑬어(뚫어) 힝션(行船)이요 (제303행)[99]

시원ᄒᆞ다 시원ᄒᆞ다, 부산항(釜山港)을 발셔(벌써) 왓네 (제408행)[100]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4·4조의 율격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4·4조 율격이 잘 지켜진다. 조선 전기의 양반 사대부 가사의 경우 3·4조 중심이었지만 조선 후기로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가사는 4·4조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당시 양반의 신분으로 관직에 몸담고 있던 작자가 조선후기 세태를 따라 3·4조 가사가 아닌 4·4조 형식의 가사를 창작하였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 작품 내에서 총 422행 중 위의 D에 나타난 부분들처럼 4·4조 율격이 사용된 부분은 대략 400행 정도로 전체 내용의 대부분이 4·4조 형식을 지키며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4율각 1행이 작품

96) <셔유견문록> p.173.
97) <셔유견문록> p.175.
98) <셔유견문록> p.178.
99) <셔유견문록> p.179.
100) <셔유견문록> p.182.

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가운데 몇몇 대목에서는 이러한 형식이 파괴되어 거의 산문화된 대목이 있다. 작자가 4·4조 형식을 파괴하고 거의 산문화한 의도는 기본 율조를 파괴함으로써 작자가 경험한 것을 독자에게 눈앞에 보듯이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함이다.

산문화된 부분의 한 예로 수정궁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대목이 있다. 이 대목은 앞서 검토하였지만 작품의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4·4조의 율격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진다. 해당 부분을 살펴보자.

E

유리집 천만간(千萬間)에, 누(樓)아릐가 화장(火場)일셰

일셩포양(一聲砲響) 나는 곳에, 승긔젼(神機箭)이 올나(올라) 간다〔살 갓치(같이) 올나 가넌(가는)불〕

산악(山岳)을 흔드난듯(흔드는 듯), 강하(江河)가 끌넌듯시(끓는듯이)

예셔도 탕탕 졔셔도 탕탕 그져 탕 또 탕탕, 안식(安息)ᄒᆞ다가

쳥쳔(靑天) 반공즁(半空中)에 오ᄉᆡᆨ(五色)비가 나리난듯, 또 씩식 탕탕

이 쳔지(天地)가 모도 다 불쳔지(天地)라, 연념(煙焰)이 창쳔(蒼天)

혹(或) 목단화상(牧丹花上)에 호졉(胡蝶)이 왕ᄂᆡ(往來)ᄒᆞ며, 풍악(風樂)이 진동(振動)

혹(或) 쳔장졀벽(千丈絶壁)에 폭포슈(瀑布水), 나리 쏫치난(솟치는) 모양(模樣)도 되고

최말(最末)의난(에는) 영황(英皇) 영후(英后), 완연(宛然)히 안진(앉은) 모양(模樣)도 되니

신긔(神奇)도 하고 이상(異常)도 ᄒᆞ거이와, 그져 두 눈 캉캄 귀가 먹먹

(제256행~265행)[101]

101) <셔유견문록> pp.177~178.

이 대목에서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 4·4조 형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서 작자는 산문화된 형식으로 불꽃놀이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4·4조 구성이지만 해당 부분에서만 이 형식을 파괴하면서 작자의 감정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독자는 형식의 흐트러짐을 통해 영국에서 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꽃놀이에 대한 작자의 놀라움과 흥분된 감정 그리고 불꽃놀이에 대한 감탄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독자가 직접 눈앞에서 불꽃놀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3) 영탄법의 적절한 활용

표현상의 특징으로 <셔유견문록>에서는 대구법, 도치법, 열거법, 설의법, 직유법 등 수많은 수사법을 동원하여 자칫하면 밋밋할 수도 있을 장편의 세계 기행을 보다 생동성 있게 전달하고 있다. 작품 내에서는 수많은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자주 사용된 수사법은 영탄법이다. 영탄법은 벅찬 감정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수법으로 고조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감탄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감탄사 '아, 오, 아아, 오호라, 어즈버' 등을 사용하거나, 호격조사 '아, 야, 이여, 이시여' 등과 감탄형 종결어미 '-아라/-어라, -구나, -ㄴ가' 등을 사용하여 강하고 깊은 감정을 드러낸다. 특히 작품 내에서는 ‘~로다’나 ‘~도다’, ‘~구나’를 활용한 어미의 사용이 자주 나타난다.[102]

102) 김기영, 앞의 논문, pp.131~132.

F

쥬야불식(晝夜不息) 긔계운동(機械運動) 〔빅 연쟝〕, 화륜션(火輪船)이 살(화살) 갓도다(같도다)

일본(日本) 장긔(長崎) 슈쳔니(數千里)를 〔쌍일홈〕, 삼일(三日)만에 득달(得達)ᄒᆞ니 〔다 왓단 말〕

조화(造化)로다 조하(造化)로다, 화륜션(火輪船) 조화(造化)로다

(제37행~제39행)[103]

이 부분에서 작가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화륜선의 속도를 화살의 빠르기와 같다고 표현하며, 수 천리(數千里)에 이르는 거리를 3일 만에 도착하여 그 속도에 놀란 부분이다. 특히나 제37행과 제39행의 경우 행의 말미(末尾)에 '~도다', '~로다'라는 영탄법적 수사어구를 사용하여 작자가 전하고자 하는 느낌을 강조하였다. 또한 39행의 '조화(造化)로다'라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 화륜선의 뛰어난 성능과 빠른 속도에 감탄한다.

G 둥덩실 놉희(높이) 쓴(뜬) ᄇᆡ(배), 살(화살) 갓치(같이) 바르(빠르)도다 (제297행)[104]

이 부분은 작가가 귀국길에 이탈리아의 제노바에서 배를 타고 나폴리로 향하는 과정인데 '둥덩실 높이 뜬 배, 화살같이 빠르다'라는 의미이다. 이 또한 '둥덩실 놉희(높이) 쓴(뜬) ᄇᆡ(배)' 부분을 통해 독자에게 배의 크기

103) <셔유견문록> p.170.
104) <셔유견문록> p.179.

가 얼마나 큰지, ‘살(화살) 갓치(같이) 바르(빠르)도다’ 부분을 통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독자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게 하며 그가 배를 보고 느낀 놀라움을 영탄법을 통해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작자가 서양의 새로운 문물이나 풍속을 보고 영탄법을 사용하여 감정을 전달하는 부분은 이 밖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영탄법 이외에도 수많은 수사법이 사용되었지만 작품 내에서 주로 사용된 수사법은 영탄법으로 몇몇 부분을 통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작자가 어떠한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하려 하는지 알아보았다.

<셔유견문록>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작가의 설명을 들 수 있다. <셔유견문록>은 <서사록>을 바탕으로 한글로 해석된 해석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작자는 해석 과정에서 어렵고 이해가 힘든 단어에는 별도의 설명을 달아놓았다. 작자는 ‘쵸인종(招人鐘)’에는 ‘사람 부르난 종’, ‘젼긔등(電氣燈)’에는 ‘졀노 케지난(켜지는) 등’이라는 설명을 달아놓았는데,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작자가 독자를 고려하여 별도의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신식 문물을 접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에 미루어 볼 때 초인종이나 전기등이 낯선 독자를 위해 주석을 덧붙인 것이다.

2. 내용상 특징

1) 서양 문물에 대한 감탄

<셔유견문록>의 내용상 특징을 살펴보자면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서양 문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탄이다. 작자는 기행을 하면서 경험한 화륜거, 영국의 여관, 궁전, 건물의 내부 구조, 군사제도, 관료의 의복, 서양 여성들의 모습 등 서양의 모든 문물과 제도, 이국의 경관에 대하여 그저 경이감과 감탄에 찬 눈으로 찬양하며 무한한 선망의 눈길을 보내며 조금의 비판도 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서술상 특징 이외에 <셔유견문록> 내용상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자는 서양의 모든 문물에 대하여 감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작자의 시선을 인물 및 경관의 측면, 교통수단에 대한 감탄, 군대에 대한 감탄에 대한 부분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먼저 인물 및 경관에 대한 감탄에 대하여 살펴보자.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A

집치러(집치레)를 볼작시면, 층누고각(層樓高閣) 운즁긔(雲中起)라
네모 번듯 빅셕(白石)으로, 마광(磨光)ᄒᆞ야 지어ᄂᆡ니
연장졉옥(連墻接屋) 화도즁(花途中)에, 삼빅만호(三百萬戶) 공장(宏壯)ᄒᆞ다
가가(家家)히 쳘난간(鐵欄干)에, 문문(門門)이 화쵸(花草)로다
도로상(道路上)에 박셕(薄石)깔고 ［널불(얇은) 돌］, ᄉᆞ이 ᄉᆞ이 슈목(樹木)이

라

(제140행~제144행)[105]

오난 사람 가난 ᄉᆞ람 억ᄭᅵ을(어깨를) 부븨(비비)이고
쌍마ᄎᆞ(雙馬車)며 외마ᄎᆞ(馬車)는, 슈미(首尾)를 년(連)ᄒᆞ도다
<u>긔졍빅ᄃᆡ</u>(백화점 이름) ᄀᆡ신시(開晨時)에 〔물건 파넌(파는) 집〕, ᄃᆡ강 ᄃᆡ강(대강) 구경ᄒᆞ셰
능나금슈(綾羅錦繡) 구산(丘山) 갓고, 금은보ᄑᆡ(金銀寶貝) 말노(말로) 된다
이리 져리 운동(運動)할졔, 화원(花園) 구경ᄒᆞ야 볼가

(제146행~제150행)[106]

가득ᄒᆞ니 긔화요쵸(琪花瑤草), 비단 갓튼 금잔듸라
슈만장(數萬丈) 쳘교(鐵橋)위을(위를), 항열(行列) 좃차 버려(벌여) 노코
왕ᄂᆡ유람(往來遊覽) 쳔만인(千萬人)에, 부녀(婦女) 더욱 번화(繁華)ᄒᆞ다
오ᄉᆡᆨ(五色) 비단 상하(上下) 의복(衣服), 금보ᄑᆡ물(金寶佩物) 화려(華麗)ᄒᆞ다
일진청풍(一陣淸風) 건듯 불면, 진진(津津) 향긔(香氣) 촉비(觸鼻)ᄒᆞᆫ다
인간(人間)인가 션경(仙境)인가, 츈몽(春夢)이 의의(依依)ᄒᆞ다
반졉관(伴接官)이 인도(引導)ᄒᆞ야, <u>동물원</u>(動物園)에 드러가니 〔각ᄉᆡᆨ 김ᄉᆡᆼ(짐승) 기르런(기르는) 동산〕
각국(各國) <u>토산</u>(土産) 김ᄉᆡᆼ(짐승)더럴(들을) 〔소산(所産)이란 말〕, 난난치(낱낱이) 류취(類聚)로다

(제152행~제159행)[107]

오날 져녁 심심ᄒᆞ니, <u>희ᄃᆡ</u>(戱臺) 구경 ᄒᆞᆫ번 ᄒᆞ셰 〔노ᄅᆡᄒᆞ고 츔 츄난 것〕

105) <셔유견문록> p.173.
106) <셔유견문록> p.174.
107) <셔유견문록> p.174.

치루화각(彩樓畵閣) 조요즁(照耀中)에, 산악(山岳) 갓튼 풍악(風樂)이라
졀ᄃᆡ미인(絶對美人) 슈십인(數十人)니, 응장셩식(凝粧盛飾) 긔이(奇異)ᄒᆞ다
쌍쌍ᄃᆡ립(雙雙對立) 거동(擧動) 보소, 노ᄅᆡᄒᆞ며 츔을 츈다
쳔만(千萬絲) 녹양상(綠楊上)에, 꾀고리가 우난다시(우는 듯이)
도리화(桃李花) 츈풍즁(春風中)에, 편편(翩翩) 호졉(胡蝶) 노난듯시(노는 듯이) 〔납븨〕
압시금 뒤군두난(서커스 묘기) 〔ᄌᆡ쥬〕, ᄌᆡ인(才人) 광ᄃᆡ(廣大) 신통(神通)ᄒᆞ다

(제169행~제175행)[108]

작자는 영국을 방문하여 층루고각, 즉 고층 건물에 대해 놀라며 그 모습이 마치 구름 속에 있다고 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낮은 층의 건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서양에 와서 본 고층 빌딩들은 작자의 시선을 압도한다. 하물며 거리 위에 있는 가로수와 바닥에 있는 박석(薄石)마저도 작자를 놀라게 한다. 수많은 마차들과 수많은 사람들, 처음 가본 백화점에서 본 여러 금은보패(金銀寶貝)들, 동물원의 각종 동물들, 식물원에서 본 기화요초(琪花瑤草), 서커스단의 아슬아슬하고 신기한 재주들까지 작자가 본 모든 장면이 작자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또한 작자는 건물의 시설에 한번 더 놀란다. 실내에 있는 화초나 비단으로 장식된 벽들과 유리창 등 호화스러운 장면과 신식문물인 초인종과 전등 등은 작자가 보기에 기이하고 부러운 풍경 또는 문물이었다.

다음으로 교통수단에 대한 감탄이 드러난 부분을 살펴보자.

108) <셔유견문록> p.174.

작자는 조선에서 경험하지 못한 빠르고 신기한 교통수단에 대하여 작품 곳곳에서 언급하였다. 당시 조선의 교통 사정은 현대와 다르게 매우 열악하였으며, 발달 또한 더딘 상태였기에[109] 사행길에 체험한 신식 교통 시설은 작자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말이나 마차, 도보 등의 수단으로 이동을 하던 조선의 당시 보편적 모습과 달리 영국으로 가는 도중 경험한 화륜선이나 화륜거 등 빠르고 신기한 수단을 보고 작자가 문화적 충격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서사록>에서 작자는 이러한 교통수단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표현을 한 것과 달리 <셔유견문록>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 포함되면서 교통수단에 대한 주관적 표현이 늘어났다. 가령 교통수단 중 화륜선에 관하여는 제37행 '쥬야불식(晝夜不息) 긔계운동(機械運動) 〔빅 연쟝〕, 화륜션(火輪船)이 살(화살) 갓도다(같도다)'처럼 과장법과 비유법을 사용하여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화살처럼 빠르다는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과장을 통하여 독자에게 그만큼 화륜선이 빠르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한다.

작자는 제39행 '조화(造化)로다 조하(造化)로다, 화륜션(火輪船) 조화(造化)로다'라고 표현하며 화륜선을 보고 조화롭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조화(造化)라함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신통하게 된 일. 또는 일을 꾸미는 재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명사인데, 이 명사가 내포하는 내용은 '어떻게 이러한 배를 만들어냈는지 신기하고 신통하다'라는 의미로 화륜선을 탄 작자의 놀라움이 반영된 구문이라 할 수

109) 1900년대 초 옛길이 신작로(新作路)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있겠다. 이 밖에도 작자는 제55행에서 '살갓튼(화살 같은) 화륜션(火輪船)니, 물결을 못니겨셔(못이겨서)'라고 서술하며 화륜선을 화살과 같다고 비유하며 그 속도가 화살처럼 매우 빠름을 독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화륜선과 같이 화륜거(火輪車, 기차)도 작자를 놀라게 하는 교통수단이다. 물론 당시 조선에도 1899년 5월 동대문과 흥화문을 잇는 구간에 전차가 투입되어 최초의 전기전차가 운행되고 있긴 하였지만 서양의 기차에 비하여는 그 속도나 규모를 따라갈 수는 없었다. 작자는 밴쿠버에 도착한 후 오른 기차에서 느낀 점을 <셔유견문록>에서 작자의 주관을 중심으로 자세히 기술하였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쳘노(鐵路) 공녁(工役) 볼작시면, 귀신인가 사람인가
> 산(山)을 쑤러(뚫어) 길을 ᄂᆡ고, 강(江)을 건너 다리 놋코(놓고)
> 산은 놉고 골은 깁퍼(깊어), 안고 돌고 지고 도ᄂᆡ
> 밤낫(낮) 가는 긔ᄎᆞ상(汽車上)에, 얀젼(眼前) 경ᄀᆡ(景槪) 평논(評論)ᄒᆞ셰 〔말한단 말〕
>
> (제66행~제69행)[110]

작자는 철로(鐵路) 기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자세한 기술을 언급하기 전 작자는 '귀신인가 사람인가'라고 언급하며 그들의 기술력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로 도보나 말을 이용하여 이동을 하던 조선의 교통수단과 달리 철로를 만들기 위해 산 위에 길을 만드는 것도 아닌 산을 뚫고 길을 내고 철로를 만든 것은 작자가 보

110) <셔유견문록> p.171.

기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랄만한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차는 강을 건너 구름다리나 축대를 넘기도 하고 구불구불 산을 돌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철로 기술을 기차를 타고 베이커산을 지나면서 몸소 체험한 작자는 그들의 기술력에 대하여 <서사록>에서도 설명하고 있다.

> 5월 15일(4. 8) 맑음
> ….이곳은 산마루가 지극히 높아서 기차선로가 밴쿠버항으로부터 베이커산 까지 지형에 따라 꾸불 꾸불 뻗어 있다. 혹은 산을 돌아 계곡을 껴안기도 하고, 혹은 강을 따라 철교를 건느기도 하고, 혹은 구름다리와 축대를 넘기도 하며, 혹은 산을 뚫어 터널을 통과해서 수천리를 달리고 있었다. 인공(人工)과 물력(物力)의 조화가 아닌가. 하늘은 강산을 만들고, 사람은 철로를 만들었다고 말할만 하다.….[111]

<셔유견문록>은 <서사록>에서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많은 주관적 의견이 포함되었지만 <서사록>은 이와 달리 작자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서사록>의 해당 부분에서 작자는 철로를 '철교를 건느기도 하고, 구름다리, 축대를 넘고, 산을 뚫어 터널을 통과하기도 한다'라고 서술하며 객관적인 사실을 관찰한 대로 표현한다. 하지만 다음 부분에서 작자는 '인공(人工)과 물력(物力)의 조화가 아닌가.'라고 서술하며 소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또한 해당 부분에서 작자는 '~아닌가'라는 어미를 서술하여 설의법으로 문장의 효과를 고조시킨다.

마지막으로 군대에 대한 감탄이 드러난 부분을 살펴보자. 이 부분은 작품 내에서 크게 드러난 부분은 아니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과 연관지어 보

111) <서사록> p.141.

았을 때 작품 상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당시 조선은 역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여러 국가로부터의 개화 압박 및 수교 압박을 받으며 세계적 입지는 하루가 다르게 좁아지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 작자는 영국이라는 서양 나라의 관병식을 우연히 구경할 기회가 생기는데, 영국의 관병식을 구경하며 작자는 당시 위태롭던 자국의 재기와 부흥을 열망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재기와 부흥에 대한 열망에는 서양에 대한 작자의 동경과 감탄의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몇몇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황후(皇后) 마ᄎᆞ(馬車) 션도(先導)ᄒᆞᆯ졔 〔황후가 말 타고 먼져 온단 말〕, 둥두려시(뎡두렷이) 안져난ᄃᆡ(앉았는데)
신슈(身手) 조흔 옥안(玉顔)이요 〔옥 갓튼(같은) 얼굴〕, ᄃᆡ례복ᄉᆡᆨ(大禮服色) 찬란(燦爛)ᄒᆞ다
황ᄐᆡᄌᆞ(皇太子)의 거둥(擧動) 보소, 집치(집채) 갓튼(같은) 말을 모라(몰아)
군장복ᄉᆡᆨ(軍裝服色) 션명(鮮明)ᄒᆞᆫᄃᆡ 〔군복(軍服)하단 말〕, 풍(風采)가 늠늠(凜凜)ᄒᆞ다

(제274행~제277행)[112]

A는 <셔유견문록>에서 가져온 내용이다. 관병식 부분에서 황후와 황태자의 모습을 표현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작자는 황후의 얼굴을 신수 좋은 옥안, 즉 옥 같은 얼굴이라고 서술하였으며, 황후의 차림새 또한 찬란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112) <셔유견문록> p.178.

작자의 긍정적인 시선은 황태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계속된다. 황태자의 몸짓을 보고 작자는 풍채가 늠름하다고 표현한다.

또한 관병식 구경 마지막 부분에서 작자는 영국을 직접적으로 칭송하는 표현을 서술한다. 아래 예문을 확인하자.

B

부국강병(富國强兵) 분정시(紛爭時)에, 셔양(西洋)에 졔일(第一)이라 (제283행)[113]

A에서 작자는 황후와 황태자의 외양 및 행동에 대하여 표현을 하며 서양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고 한다면 B에서 작자는 비교적 직접적으로 서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영국을 부국강병, 즉 부유한 나라이며,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서양에서 최고의 국권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한다. 이 부분에서 작자가 영국을 서양 최고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실히 드러난다.

군대에 대한 감탄 부분은 작품에서 많이 드러난 부분은 아니지만 관병식 부분에서 인상 깊게 드러난 부분으로 꼽힌다. 작자가 영국의 체계화된 군대 관병식을 보며 어떤 점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직접적으로 <셔유견문록>에 드러난 부분이며, 영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작자의 감탄과 동경의 마음이 다시한번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작자는 부국강병을 고루 갖춘 영국의 모습을 보며 조선의 암울한 현실에 대하여 생각해보

113) <셔유견문록> p.178.

고 부국강병을 꿈꾸었을 것이다. 작자의 이러한 서양에 대한 시선은 작품 전반에 밑바탕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나타난 작자의 감탄의 표현은 주목할 만한 특히 부분이라 볼 수 있겠다.

2) 인종에 대한 차별적 인식

작자는 서양의 문물과 풍속들 중에서도 특히 서양 여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인다. 작자가 본 영국의 부인은 당시 조선인들의 외양(外樣)과는 상반된 모습이고, 조선인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장식, 갖추는 의복과는 거리가 먼 낯선 모습이었을 테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B

공경ᄃᆡ부(公卿大夫) 부인(婦人)더리(들이) 〔영국 관인(官人)덜(들)〕, 폐현ᄎᆞ(陛見次)로 입궐(入闕)ᄒᆞ야 〔인군게 뵈우단(뵙는단) 말〕

각ᄉᆡᆨ(各色) 비단 상하의(上下衣)와, 보셕(寶石) 투심(投心) 녜복(禮服)으로 〔보비즁 졔일〕

화관화모(花冠花帽) 빗난 거실(것을) 〔ᄭᅩᆺ츄로(꽃으로) 만든 갓〕, 운치(韻致) 잇게 눌너 씨고(눌러 쓰고)

오륙빅명(五六百名) 미인(美人)더리(들이) ᄭᅩᆺ가지를 ᄀᆡᄀᆡ(個個) 드니

옥경(玉京) 션관(仙官) 아니며난, 요지연(瑤池淵)에 왕모(王母)로다

향취(香臭)가 촉비(觸鼻)ᄒᆞ고, 안목(眼目)이 현황(眩慌)ᄒᆞ다

(제209행~제214행)[114]

114) <셔유견문록> p.176.

버킹엄 궁전에서 만난 영국 관료의 부인들의 모습을 묘사한 대목이다. 작자는 서양 여자들을 요지연의 왕모, 즉 선녀와 같다고 표현하였으며, 달과 같고 꽃과 같은 미인, 즉 '여월여화(如月如花) 미인(美人)'으로 인식한다. 이는 작자가 서양의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양의 여인들을 칭송한 것과 달리 작자는 사행 중 만났던 비(非)서구권 인물들에 대하여는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로 그들의 생김새를 비하하고 있다. 작품 내에서 비(非)서구권 인물들이란 흑인을 지칭하는데, 한마디로 백인에 대하여는 낯설지만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였지만 흑인에 대하여는 편견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C

아졍항(亞丁港, 아덴, Aden)에 도박(到泊)ᄒᆞ니 〔쌍일홈〕, ᄃᆡ완국(大宛國, 페르가나, Ferghana)이 분명(分明)ᄒᆞ다 〔쌍일홈〕

한무뎨(漢武帝) 시졀(時節)에〔한 나라 인군〕, 이사(李斯?) 장군(將軍) 셩공지(成功地)니〔사람 일홈〕

흑인종(黑人種)에 거ᄉᆡᆼ지(居生地)라 〔거문(검은) 사람〕, 흑인종(黑人種) 출처(出處) 듯소

얼골 검고 몸도 검어, 옷칠ᄒᆞᆫ 모양(模樣)이니

일신(一身)에 의복(衣服) 업시(없이), 평ᄉᆡᆼ(平生)을 벗고 살지

모양(模樣)이 녕악(獰惡)ᄒᆞ고, 심슐(心術)이 흉영(凶獰)ᄒᆞ야

흑귀ᄌᆞ(黑鬼子) 흑귀ᄌᆞ(黑鬼子), 이거시(이것이) 흑귀ᄌᆞ(黑鬼子)라

동양(東洋) ᄉᆞ람 만나 보면〔동편 바다〕, 간간(間間)히 음히(陰害)ᄒᆞ네

어려셔 드른 말을, 잇싸(땅)에셔 보리로다

마음에 위틱(危殆)ᄒᆞ야, 잠간(暫間) 보고 ᄇᆡ에 올나

(제313행~제322행)[115]

위 부분은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도중 페르가나(대완국)에 들러 만난 흑인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다. 이 부분만 보아도 작자가 흑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작자는 흑인의 얼굴과 몸이 검은 것도 검은 것이지만 그들의 몸에 의복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 조선에 개화가 시작되고 있던 시기라 할지라도 유교적이며 보수적인 사상이 남아있던 시기이기에 조선인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 추측해보았을 때 의복을 갖춘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다. 그런데 의복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생활하는 흑인의 모습이 당시 전형적인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작자에게 비난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은 작자의 어투로도 확인할 수 있다. '얼골 검고 몸도 검어, 옷칠흔 모양(模樣)이니 일신(一身)에 의복(衣服) 업시(없이), 평싱(平生)을 벗고 살지'라는 부분에서 작자는 의복을 갖추지 않고 생활하는 흑인에 대해 그들의 무례함을 굉장히 비아냥거리며 표현하고 있다.

페르가나의 흑인에 대한 작자의 부정적 인식은 단지 의복 때문만은 아니다. 작자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영악하다고 하며, 심술 또한 고약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동양(東洋) ᄉᆞ람 만나 보면 〔동편 바다〕, 간간(間間)히 음히(陰害)ᄒᆞ네'라며 흑인이 동양 사람인 작자 자신을 음해(陰害)할

115) <셔유견문록> pp.179~180.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작자는 영국에서와 달리 구경을 하지 않고 재촉하며 다시 배에 오른다. 여기서 흑인이 영악하고 심술이 고약한 것은 작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점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흑인의 생김새에서 느껴지는 작자의 주관성이 다분한 부분이다. 작자는 사행 중 직접 본 흑인들을 흑귀자라고 칭하기까지 한다. 여기서 흑귀자(黑鬼子)란 흑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이를 통해 작자는 흑인을 서양인이나 우리 민족보다 훨씬 더 미개한 종족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이 부분의 언술이 서양에서의 풍물과 인물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묘사한 것보다 짧고 간결하며 투박한 것은 작자의 흑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D

귀신(鬼神)일셰 귀신(鬼神)일셰, 셔양(西洋) ᄉᆞ람 귀신(鬼神)일셰
밧븨(바삐) 밧븨 힝션(行船)ᄒᆞ야, 셕난도(錫蘭島, 콜롬보, Colombo)에 다다르니 〔쌍일홈〕
이ᄯᅡ(땅)히 어듸ᄆᆡ요(어디메오), 흑인종(黑人種)에 거지(居地)로다
이곳 풍속(風俗) 볼작시면, 활작 버신(벗은) 검운(검은) 살에
머리도 ᄭᅡᆨ거시며(깍았으며), 북상토(북상투)도 트러난ᄃᆡ(틀었는데)
손목에난 금환(金環)이요 〔금고리〕, 발목에난 은환(銀環)일셰 〔은고리〕
녀인(女人) 모양 볼작시면 〔겨집〕, ᄀᆡᄀᆡ(個個)히 귀에 고리
그 즁(中)에 졀도(絶倒)할 일, 두 코구녁(콧구멍) 치ᄯᅮ러셔(치뚫어서)
금장식(金粧飾) 은장식(銀粧飾)은, 우습고(우습고) 이상(異常)ᄒᆞ다

(제341행~제349행)[116]

116) <셔유견문록> p.180.

이 부분은 영국을 다녀오는 여정 중에 들린 '셕난도' 단락이다. 페르가나와 마찬가지로 흑인의 외양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작자가 본 흑인의 모습이 머릿 속에서 그려질 정도로 그들의 장신구 하나까지 묘사가 되어 있지만 페르가나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투박하게 묘사하였다. 작자는 여전히 흑인의 검은 피부색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짧은 머리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95년 을미사변 이후 내정개혁으로 인해 전국에 단발령이 실시되기는 하였지만 뿌리 깊은 유교적 영향으로 인한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사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여,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은 부모에게 큰 불효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기에 짧은 머리보다 긴 머리에 상투를 틀고 다니는 것이 훨씬 익숙했던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아 낯선 이국땅에서 본 흑인의 짧은 머리는 작자가 이질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머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목과 발목에 있는 장식들과 귀걸이와 코를 뚫어서 한 장식들 모두를 작자는 우습고 이상하다고 한다.

이렇게 작자는 사행 여정 중 본 흑인에 대해 흑귀자(黑鬼子)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흑인을 우습고 미개한 종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작자는 흑인들에 대해 문화적 충격을 느끼고 그 충격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서양문화의 경우 작자는 서양 문화를 경험하고 그에 대한 문화적 충격을 긍정적으로 인식했기에 서양인들의 모든 것들이 그저 신기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고 그들의 풍속과 문물을 동경하는 시선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

한 연유(緣由)로 작자는 서양인들에게는 긍정적인 인식을, 흑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내용 변화 형태를 중심으로 <서사록>과 <셔유견문록>의 관계를 연구하고,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규명해보았다. 현전하는 사행가사로 <셔유견문록> 이전 시대에는 주로 일본과 중국 기행에 한정하여 그 기록물이 전해지고 있다. <셔유견문록>처럼 서양을 다녀와서 기록물을 남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리고 이렇게 한글 가사로 이루어진 점 또한 우리 문학사에 드물다. 이런 이유에서 <셔유견문록>이 우리 문학사에서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연구하여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결론을 삼고자 한다.

<서사록>을 집필한 작자가 <셔유견문록>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짜에 같은 사건을 겪거나 같은 대상을 관찰할지라도 두 작품이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표기 수단 자체가 다르며, <서사록>은 작자의 한문 기록물, 일기적 성격이 강한 반면 <셔유견문록>은 <서사록>을 해석하기는 하였지만 편집을 통하여 내용의 변화로 인해 문학 창작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장르 자체가 바뀜에 따라 내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셔유견문록>에서는 <서사록>에 기록된 날짜/(음력날짜)/날씨의 형태가 사라지고, 간간히 날짜가 등장한다. 또한 작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생각도 포함된다. <서사록>은 최대한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은 반면 <셔유견문록>에서는 작자의 감정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 내용 중간중간에 임금에 대한 연군지정(戀君之情)을 담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객지에 떨어져 지내는 작자의 외로움과 고향,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다. 또한 한글 설명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특징들 가운데 <서사록>이 <셔유견문록>으로 번역되는 과정 중 많은 내용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를 형태별로 보자면 <서사록>에 기록된 사건 순서와 <셔유견문록>에 기록된 사건 순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작품의 구조상 내용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이다. 작자가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덧붙여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작자는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여관에 대하여 묘사한 부분이나 버킹엄 궁전에 대하여 묘사한 부분, 작자가 달을 보며 가족을 그리워하는 부분 등이 있다. 또한 작자는 <서사록>을 <셔유견문록>으로 재해석하는 과정 중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제를 하였다. 내용이 없고 날짜/(음력날짜)/날씨만 기록된 부분이나, 날짜/(음력날짜)/날씨+날씨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분, 일상적인 부분, 불필요한 지명(地名), 공무수행에 관한 내용 등을 탈락시킴으로써 작품을 탄탄하고 매끄러운 구조로 변형시켰다. 마지막으로 작자는 <서사록>에서 길게 표현된 부분을 <셔유견문록>에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간략한 내용으로 요약을 하였지만 많은 수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독자에게는 장황한 설명보다 이해하기 쉽다.

본고에서는 <셔유견문록>의 전반적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셔유견문록>은 aaba식 구조, 4·4조 율격 등 작품이 해석되기 이전 시기의 민요적 특징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독자에게 친근한 느낌을 준다. 또 한글 주석과 많은 수사법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기 쉽게 하며 생생한 묘사와 뛰어난 표현 방식을 통하여 독자로 하여금 직접 서양을 체험하는 듯 한 느낌을 전달한다.

<셔유견문록>이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작품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작품 내에서 작자는 서양의 문물과 풍속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예찬과 보여주기식의 묘사만 있을 뿐 당시 조선의 현실과 미래에 대하여 서양을 관련지어 서술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몇몇 부분에서는 자국(自國)의 부국강병에 대한 열망이 내재되었음직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조선의 현실에 대해 걱정하고 당시의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작자의 고민이 드러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나 작자가 사행 도중 제일 오래 머물렀던 영국에서 작자가 당시 영국의 생활상과 조선을 연관시켜 조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점, 그리고 관병식을 구경하며 영국을 서양 최고라고 치켜세우지만 이를 당시 조선의 상황과 연관 지어 조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강구하지 않고 다만 감탄과 부러움에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만 보았다는 점이 <셔유견문록>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김기영, 「<셔유견문록>의 문예적 실상과 교육적 가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12.

김두진, 「동아시아 華夷論의 變容과 朝日의 萬國公法수용의 他者認識」,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3호, 한국 정치학회, 2010.

김상진, 「李鍾應의 <셔유견문록>에 나타난 서구 체험과 문화적 충격」, 『우리文學硏究』 제23집, 우리문학회(구, 우리문학연구회), 2008. 2.

_____, 「<셔유견문록>에 나타난 西洋, 그 열망의 공간」, 『한국언어문화』 제4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12

김신중, 「서민가사의 작자층과 수용자층」, 『호남문화연구』 제38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6. 6.

김원모, 「李鐘應의 <서사록>과 <셔유견문록> 解題」, 『동양학』 제3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2002. 6.

_____, 「한국의 영국 축하사절단 파견과 한·영 외교관계」, 『동양학』 제3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2002. 6.

김윤식·김우종 외 34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06.

김윤희, 「조선후기 사행가사의 세계 인식과 문학적 특질」,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0.

_____, 「사행가사에 형상화된 타국의 수도(首都) 풍경과 지향성의 변

모」,『어문논집』 제65집, 민족어문학회, 2012.

_____,「20세기 초 외국 기행가사의 세계 인식과 문학사적 의미」,『우리文學硏究』 제36집, 우리문학회, 2012.

김정주,『詩歌文學硏究』,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6.

김흥수,「운요호사건과 이토 히로부미」,『한일관계사연구』 제33집, 한일관계사학회, 2009. 8.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이종응의 <서사록>과 <셔유견문록> 資料」,『東洋學』 제3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2. 6.

동아일보, 1999. 4. 12.

류해춘,『가사문학의 미학』, 보고사, 2009.

박노준,「<海遊歌>와 <셔유견문록> 견주어 보기」,『한국언어문화』 제2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6.

박애경,「'록자류' 가사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한국문학연구』 제26집,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2003. 12.

박은숙,「갑신정변 참여층의 개화사상과 정변 인식」,『역사와 현실』 제51집, 한국역사연구회, 2004. 4.

부천시사편찬위원회,『부천시사』, 1권, 2002.

삼성출판사 편집부,『자신만만 세계여행 1-유럽』, nSF 삼성출판사, 2001.

_____,『자신만만 세계여행7-캐나다』, nSF 삼성출판사, 2001.

신명란,「한국 근대 이행기 시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8.

안용환,「유길준의 개화사상과 대외인식의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9.

안혜자, 「<무자서행록>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2.

양수찬,「조선조 후기 서민가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염은열,「기행가사의 '공간' 체험이 지닌 교육적 의미」,『고전문학과 교육』제12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8.

우홍준,「구 한말 유길준의 정치·사회·경제론 : <서유견문>을 중심으로」, 韓國行政學報 제38집, 한국행정학회, 2004. 2.

유정선,「18, 19세기 기행가사의 작품세계와 시대적 변모양상」,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육민수,『조선후기 가사문학의 담론 양상』, 보고사, 2009.

이형대,「〈서유견문〉의 서구 여행 체험과 문명 표상」,『批評文學』제34집, 韓國批評文學會, 2009. 12.

임형택,『옛 노래, 옛 사람들의 내면풍경』, 소명출판사, 2005.

장정수,「20세기 기행가사의 창작배경과 작품 세계」,『어문논집』제47집, 민족어문학회, 2003. 4.

전복규,「조선후기 가사에 나타난 근대의식의 고찰」,『한국의 민속과 문화』, 제3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0. 12.

정기철, 「기행가사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1996.

_____, 『한국 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 2001.

정영문, 『조선시대사행록의 텍스트와 콘텍스트』, 학고방, 2011.

정재호, 「잡가집의 특성과 문학사적 의의」, 『韓國 詩歌硏究』 제8집, 한국시가학회, 2000. 8.

정흥모, 「20세기 초 서양 기행 가사의 작품세계」, 『한민족문화연구』 제31집, 한민족문학회, 2009. 11.

조규익, 『국문 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조하연, 「민요의 교육적 자질에 대한 일 고찰」, 『韓國敎育學硏究』 제37집, 국어교육학회, 2010. 4.

최강현, 「한국 기행문학 연구 : 주로 조선시대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1.